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39호 【루계 제25017호】 주체10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최고재판소 산하단위 소장 장현일은 혁명군대의 본때로 쑥섬개발전투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인민군군인들을 성의껏 원호하였다.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군시대의 애국청년으로 삶을 빛내일 일념밑에 대성지도국 부원 남정철은 여러차례 전투현장을 찾아가 힘있는 경제선동과 원호사업으로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였다.

평양시건설관리국 상하수도건설사업소 로동자 리영철은 과학기술전당을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위력한 거점으로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할 마음안고 들끓는 건설장에서 로력적, 물질적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철도검찰소 리영옥은 착공의 첫날부터 쑥섬에 달려나가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면서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었다.

수도건설위원회 산하단위 문서원 김윤미는 총공격전의 기상이 나래치는 전투장에서 야간지원청년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많은 설비와 원호물자들을 군인들에게 보내주어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모란봉구역검찰소 윤정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원 안송희는 과학기술전당건설에도 공민적량심을 바치였다.

릉라곱등어관 회계원 김련은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는 건설장에서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도 하고 수많은 자재도 지원하여 공사에 이바지하였다.

지난 시기 중요대상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옥류아동병원 김리희는 과학의 섬으로 전변되는 쑥섬전역에도 달려가 성의있는 후방사업으로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일념밑에 평양정보기술국 로동자 한봉순은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전투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쑥섬개발사업이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보통강려관관리국 로동자 최경옥은 가정에서 마련한 여러가지 물자들을 가지고 전투장으로 찾아가 지원사업을 적극 벌리였다.

인민보안부 산하단위 지도원 조영선은 단숨에의 기상을 떨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과감히 벌려나가는 군인건설자들을 여러차례 원호하였으며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강경주도 전당건설에 온갖 지성을 바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로동당의 손길아래 후손만대가 복락을 누려갈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하는 애국위업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올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

저희들은 세계 여러 나라 대학 학자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명성높은 김일성종합대학이 주최한 국제학술토론회를 성과적으로 끝마치면서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각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리는 영광을 지니는바입니다.

《과학발전과 문명국건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토론회는 과학의 선도자적역할을 더욱 높여 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가려는 여러 나라 대학들과 김일성종합대학사이의 교류와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 의의깊은 회합이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 대학들과 김일성종합대학 학자들이 21세기 인류의 참다운 문명사회건설을 위한 길에서 함께 손잡고 친선의 뉴대와 정을 두터이해나가도록 뜻깊은 국제학술토론회를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표합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인민이 조국해방 70돐을 뜻깊게 경축하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맞이할 열의로 들끓고있는 때에 여러 나라 대학들과 김일성종합대학 학자들이 과학발전과 인류의 문명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학술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토론회를 통하여 인류의 문명발전을 과학기술로 안받침하며 세계 여러 나라 대학들과 명성높은 김일성종합대학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토론회기간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령도밑에 첨단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을 온 세계가 보란듯이 건설해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굳게 확신할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모든 학자들은 학술분야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김일성종합대학과의 교류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것이 인류의 과학발전과 문명사회건설에 매우 유익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김일성종합대학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 대학들과 김일성종합대학사이의 친선적인 교류와 협조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안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 참가자일동

2015년 8월 26일 평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운 시대어로 밝혀주신 《청년강국》, 《선군청년문화》에 관한 중앙사상리론연구토론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운 시대어로 밝혀주신 《청년강국》, 《선군청년문화》에 관한 중앙사상리론연구토론회가 2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성, 중앙기관, 청년동맹, 과학, 교육,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교원, 연구사, 기자, 편집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운 시대어로 밝혀주신 《청년강국》, 《선군청년문화》에 관한 사상리론의 정당성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방도들을 밝힌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구한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들을 혁명의 주력부대로 내세우시고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의 품속에서 이 땅우에 청년중시의 위대한 경륜이 마련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 탄생하게 된것입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70년력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위대한 청년중시의 력사》라는 제목으로 사회과학원 소장 교수 박사 전하철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70년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조국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일떠세운 성스러운 력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중시를 혁명의 제일중대사로 일관하게 내세우시고 그 누구도 실현해보지 못한 청년중시정치의 새 력사를 펼치시여 청년강국건설의 만년기틀을 마련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과 정치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빛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력사를 청년중시의 력사로 꿋꿋이 이어놓으시고 우리 조국을 무진막강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뿐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빛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중시를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강국》, 《선군청년문화》라는 새로운 시대어를 탄생시켜주시였다.

우리 조국을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길이 빛나고있고 당의 청년중시정치가 변함없이 이 땅우에 펼쳐지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으로 부강하며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금성정치대학 부학장 신광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청년강국에 관한 사상은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리론》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강국에 관한 사상이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리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청년들이 차지하고있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의 강국건설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해명한 사상리론이기때문이다.

이 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들을 혁명의 주체의 당당한 구성부분으로뿐아니라 그 주력부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가장 활력있는 력량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움으로써 사회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상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전렬에 우리 청년들을 내세우고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의 전로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온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집대성한것으로 하여 가장 혁명적인 사상리론으로 된다.

청년강국에 관한 사상은 그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자기의 기발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조선혁명의 고귀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고 집대성한 사상리론인것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다.

청년중시를 우리 당과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한 청년강국의 력사는 영원하며 조선청년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선군청년문화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조선청년들의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화》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금성청년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오혜선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백두산의 청신한 정기와 억센 기상이 어려있는 선군청년문화는 숭고하고도 영웅적인 사상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이 억세게 나래치는 조선청년들의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문화이다.

숨결도 발걸음도 항일혁명선렬들처럼 해가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청년들이기에 그렇듯 고상한 정신세계와 전투적인 기풍, 깐진 일본새로 일관된 혁명적인 생활문화를 창조하며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는것이다.

다음으로 선군청년문화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 락천적이고 명랑한 정서가 넘쳐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조선청년들의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문화이다.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비관을 모르는 락천적이고 명랑한 우리 청년들의 풍만한 정서생활은 그 어떤 가식이나 꾸밈도 없는 진실하면서도 선군시대 청년들의 기백이 맥박치는 생활문화이다.

선군청년문화는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을 정히 받들어 청년강국건설의 빛나는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철학적사색과 발견으로 이루어진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전구들마다에서 더욱더 용감하게, 대담하게, 질풍같이 전진해나갈것이며 선군청년문화를 더욱 활짝 꽃피우며 강성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갈것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청년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는것은 청년동맹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청년들이 강성국가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령도업적을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청년동맹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은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맞이 나게,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려 청년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하고 고상한 정치사상적풍모를 갖춘 정신력의 최강자들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

모든 청년들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제일 결사대가 되여 선봉대, 돌격대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 신성한 의무로 간직하고 반미대결전의 1선참호를 튼튼히 지키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불타는 애국충정을 지니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투장마다에서 청춘의 힘과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며 선군청년문화의 창조자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기본담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김진하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을 당과 수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인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동맹원들을 견결한 선군혁명투사로 준비시키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과 동맹원들이 당에서 올린 총공격전의 포성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청년들을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해나가도록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토론자들은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이 청년운동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 5사갱구역 관통 평안남도청년돌격대려단에서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공사에 참가한 평안남도청년돌격대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석수가 뿜어져나오는 지하막장에서 조선청년의 기개와 용감성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얼마전 요란한 폭음과 함께 이 공사에서 가장 돌파하기 어려운 구간으로 남아있던 5사갱물길굴 전구간이 관통되였다.

이 물길굴이 관통됨으로써 가까운 몇달안에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 전구간을 관통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입니다.》

희천발전소물길굴과 대비할만큼 긴 구간의 굴뚫기공사는 1사갱—2사갱, 2사갱—3사갱, 3사갱—5사갱, 5사갱—6사갱구간으로 나뉘여 진행되고있다.

그중에서 가장 오래동안 지속된 전투가 바로 3사갱—5사갱물길굴구간이고 만사람의 격동을 자아내는 전투담들도 바로 여기에서 생겨났다.

이 물길굴구간의 연장길이는 수백m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불과 몇m를 전진하면 공동구간과 맞다드는 동시에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물과 감탕이 덮쳐들었고 견인불발의 의지로 극복하면 또다시 이와 같은 난관이 앞을 막아서군 하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 주저앉았을 광란하는 자연과의 투쟁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이 진격의 돌격로를 보란듯이 열수 있은것은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곳 청년돌격대려단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돌려주신 대해같은 믿음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 2월 이 공사장에 길영조청년돌격대가 생겨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당조직들에서 이들의 애국심을 더욱 키워주고 잘 보살펴주며 이끌어주어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내세워야 한다고, 청년들의 소중한 애국심에 접하고보니 우리 당은 천군만마를 얻은듯 힘이 난다고 했다는것을 돌격대원들에게 전달해주고 1비서의 인사를 꼭 전해주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몇달후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참가한 이곳 돌격대려단의 수십명 청년돌격대원들은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최대의 영광을 지니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돌려주신 크나큰 믿음과 은정은 청년돌격대원들의 온몸을 혁명열, 투쟁열로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평안남도청년돌격대려단 2.16청년결사대와 길영조청년돌격대의 청년돌격대원들, 덕천, 북창, 득장,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 청년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시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3사갱과 5사갱사이 273m계선과 6사갱과 5사갱사이 82m계선의 두개 방면에서 맹돌격하였다.

려단지휘부에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보람의 맹세가 곧 굴뚫기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대대별로 한교대씩 막장을 타고앉아 집중공격하도록 굴진력량을 배치하는 한편 마구리당 착암기가동대수를 종전의 3배로 늘이고 앞선 버럭처리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대회이후 결사의 맹세를 안고 돌격전에 나선 길영조청년돌격대원들이 한달이 걸려야 한다던 수백m³의 버럭을 단 9일동안에 처리할 때 2.16청년결사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하루 굴진실적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

공사조건이 불리한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열기는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지난 5월에 청년돌격대원들이 돌파한 마구리당 굴진m수가 95m였다면 7월 1일부터 25일사이 기간에 마구리당 굴진m수는 122m로 늘어났다.

이것은 최근년간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찾아보기 드문 놀라운 굴진속도이고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낳은 영웅적투쟁의 자랑찬 화폭이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살아도 죽어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피와 땀,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항일선렬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진격의 돌격로를 열어나갔다.

그리하여 몇년이 걸릴지 기약할수 없다던 3사갱—5사갱 물길굴구역에서 관통의 함성이 터져오르는 력사적순간을 맞이하게 되였다.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높이 청년돌격대원들은 진격속도를 더욱 높이면서 10월의 대축전장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할 불타는 한마음을 안고 련속천공, 련속발파의 동음을 높이높이 울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전기설비와 애자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경성애자공장에서

경성애자공장에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줄 전기설비와 애자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계획된 전기설비와 애자를 이미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준데 이어 힘찬 전투를 벌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과학기술전당건설에 요구되는 전기설비와 애자생산을 끝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줄 전기설비와 애자생산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당조직에서는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전기설비와 애자를 시급히 생산보장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굴식소성로를 일떠세웠으며 소성공정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받아들여 지난 시기보다 석탄을 훨씬 절약하면서도 애자생산을 부쩍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기술집단은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지혜를 합쳐 여러 생산공정을 현대화함으로써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줄 전기설비와 애자생산을 맡은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고압기구청년직장에서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고압배전반과 차단기, 단로기를 비롯한 전기설비생산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들이대여 한달동안에 10여대의 전기설비를 조립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주조직장의 로동자들은 공장기술집단과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소둔로에 새 기술을 받아들여 소재가열시간을 줄이였으며 며칠은 실히 걸려야 할 주물품생산을 2일동안에 해제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소성직장에서는 교대가 교대를 돕는 미풍을 발휘하면서 가스발생로와 소성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여 애자의 질과 량을 다같이 높여나갔다.

1애자직장과 2애자직장을 비롯한 애자부문의 직장들에서도 전례없는 생산성과를 기록하였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 보내줄 전기설비와 애자생산을 결속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줄 전기설비와 애자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은남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 만대에 길이 빛나리

청년사랑, 청년중시의 위대한 경륜을 펼치시여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수백만 청년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에 쪼아박힌 새기고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투장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아름다운 소행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령도자의 사상과 의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령도자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애국헌신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청년대군을 가진 청년강국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뜻깊은 청년절이 다가오고있는 지금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은 청년중시의 경륜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으며 청년강국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결의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였으며 한평생 청년들과의 사업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습니다.》

청년들은 혁명투쟁의 당당한 주력이다.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개척기부터 견지하여오신 청년중시사상이다.

혁명활동을 시작하시던 첫 시기부터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의 고귀한 결정체가 바로 주체16(1927)년 8월 28일에 결성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였다.

공청은 조선청년들의 선봉대로서 각계층 대중단체들을 조직지도하는 전위조직이였다. 바로 공청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여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직을 확대해나가시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 주체19(1930)년 여름에 결성된 첫 당조직인 건설동지사 성원들의 대다수도 공청을 통해 육성된 선봉적인 청년투사들이였고 항일전쟁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무명의 영웅들도 공청의 산아들이였다. 공청에서 단련된 청년투사들로 항일유격대가 창건되고 그 청년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였으며 그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조국해방위업이 성취되였다.

실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조선의 열혈청년들을 혁명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키우시며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어찌 글로써 다 칭송할수 있을것인가.

어버이수령님의 청년중시정치는 새 조국건설시기와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 등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거쳐 줄기차게 이어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조선청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은 또 한분의 희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다.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청년운동을 발전시키고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을 중요한 전략적방침으로 내세우신 우리 장군님,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청년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로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90년대의 력사적진군길에 오르던 주체79(1990)년 3월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청년들을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하도록 교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당시)에 청년전위라는 칭호를 주었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이 그 의미를 다는 모를것이라고, 청년전위라는 칭호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사령부를 호위하던 경위중대의 《경위》와 같은 칭호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그때 경위대원들의 대부분은 공청원들이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경위》와 같은 《전위》라는 칭호를 지닌것을 크나큰 영예로, 자랑으로 간직하고 청년전위답게 당과 수령을 충정으로 받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고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혁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주체79(1990)년 5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절을 제정할데 대하여 연구하여보아야 하겠다고,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을 맡아서 일을 잘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청년들이 앞으로도 우리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위훈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자면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고무하여주어야 한다고, 청년들을 고무하여주기 위하여서는 청년절을 제정하는것이 좋다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정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불길이 되기를 바라시며 혁명의 홰불봉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의 눈앞에 전체 청년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사에 따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할데 대한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신데 이어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성스러운 기발을 청년동맹에 수여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이 어려온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청년운동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감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철석같은 의지가 반영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청년동맹의 이름에 모신 력사적사변이 있은 때로부터 얼마후의 일이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청년조직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청년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지침을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여나가는것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본사명이며 조선청년운동의 총적목표이라고 하시면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후비대이고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이런 청년사랑, 청년중시로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에 불러주시여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 영웅으로 키우시였으며 청년들이 발휘한 소행들을 귀중히 여기시여 온 나라에 크게 내세워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청년중시의 경륜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숭고한 부름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것인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해주시고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청년미풍선구자들의 소행들을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속에서 우리 수백만 조선청년들은 순결하고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조국보위초소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투장들마다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치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청년중시의 경륜,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청년운동의 대강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청년강국의 불패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힘차게 전진하는것이다.

본사기자 정선철

절세위인의 청년관

주체적인 청년운동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들을 전하는 하많은 이야기들가운데는 절세위인의 청년관에 대한 잊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은 새세대들이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되는가 준비되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주체52(1963)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사업을 맡아보는 한 일군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너무도 다정다감하신 그이의 인품에 끌리여 청년일군은 장군님께서 지니신 청년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무람없는 청을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의 청년관에 대하여 알고싶단 말이지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문제는 우리 혁명의 당면문제인 동시에 전망적인 문제이라고, 지금까지 선행고전들에서는 청년문제를 혁명력량에 관한 문제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기껏해서 각성된 청년인테리들이 혁명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교량자적역할을 하는것으로 보았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청년문제를 력사상 처음으로 새롭게 보고 그들을 우리 혁명의 주력군의 하나로 내세우신분은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주체적인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로정에 대하여 론리정연하게 해설하시였다.

뜻깊은 자리에서 절세위인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게 된 청년일군은 그이의 교시내용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수첩에 적어나갔다.

그 일군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야기를 계속하시였다.

청년들이란 곧 미래이다. 청년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조국의 앞날이 좌우되고 혁명의 운명이 결정된다. 청년문제는 오늘의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당면한 문제로만이 아니라 래일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만년대계의 문제로 보고 전망성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례컨대 앞으로 온 사회에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게 되면 계급으로서의 농민문제는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청년문제는 인류력사에 영원히 존재하는 항구적인 사회적문제로 된다. 따라서 청년문제란 오늘의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로만이 아니라 래일의 주인공에 관한 문제, 혁명의 영원한 미래에 관한 문제로 나서는것이다. …

우리는 청년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억만제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한마디로 말하여 최대한으로 내세우고 최대한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청년들에 대한 가장 옳바른 태도와 립장이라고 그이께서는 교시하시였다.

일군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였다.

처음에는 청년문제에 대한 그이의 간단한 고견이나 받을가 하였는데 청년들에 대한 견해와 관점뿐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태도와 립장에 관한 문제까지도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천출위인상에 그 일군은 완전히 매혹되였다.

우리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청년중시사상이 집대성된 주체적인 청년운동의 강령적지침을 환히 밝혀주신 우리 장군님.

최대한으로 내세우고 최대한으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혁명의 대를 굳세게 이어나가야 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지론이였고 숭고한 뜻이였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 장군님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의 위대한 사상이 있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선군조선의 청년들의 앞날은 영원히 밝고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로 빛나는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갈 결의에 넘쳐있는 금성정치대학 청년대학생들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총대와 청춘

뜻깊은 청년절을 앞둔 이 시각 이 땅의 수백만 청년들의 가슴가슴에는 과연 무엇이 끓고있는가.

사회주의건설장들과 혁신의 동음 세찬 공장, 풍년나락 가꿔가는 전야, 지식의 탑을 쌓아가는 해빛밝은 교정…

진정 이 땅의 그 어디에 있어도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조국수호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으며 총대에 마음을 얹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조국보위의 기본력량이며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는것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은 선군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일찌기 혁명의 초행길에서 총대를 틀어쥐여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는 철의 진리를 심장에 새기시고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밑천으로 하여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우리 수령님,

원쑤 일제를 때려눕히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한 거창한 위업실현을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는 동지들을 얻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였다.

총대와 같이 굳세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을 전위투사들이 있어야 사생결단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할수 있었다.

하여 우리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서 생사를 같이할 동지들을 얻는 길이라면 사선천리도 주저하지 않으시였다.

그렇게 묶어세운 한명한명의 열혈의 동지들로 우리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대오를 조직하시였으며 강도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투사들은 거의 모두가 20대의 청년들이였다.

조선혁명은 이렇듯 열혈청년들이 총대로 개척한 가장 성스러운 혁명이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을 위하여 결사전의 앞장에서 심장을 내댄것도 청년들이였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한 주인공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이였다.

우리 혁명사에 총대와 청춘은 언제나 함께 있었다.

총대와 청춘!

이 신성한 부름은 위대한 선군시대에 더욱 빛나게 되였다.

청년절을 제정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웅심깊은 뜻이 되새겨진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새세대 청년들이 변함없이 이어나갈것을 바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뜻깊은 청년절 제정에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로 사랑하고 믿으신 사람들은 과연 누구들이였던가. 바로 조국보위의 초소에 선 병사들이였다.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최전연초소들과 외진 섬초소들, 천리방선의 높고낮은 산발들에 오르시여 사랑하는 병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남겨주시고 그들의 밝은 앞날까지도 따뜻이 축복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하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총을 잡았던 병사시절은 혁명의 고귀한 뜻과 계급투쟁의 진리를 뼈에 새기게 한 가장 값높고 보람찬 시절이였다.

오늘날 세계를 둘러보면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자기 혼자만을 위하여 군사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하지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자라난 선군조선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다르다.

이 땅에 준엄한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일신의 안락을 위한 보금자리를 찾은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하기 위한 조국보위의 성전에 떨쳐나섰다.

총대를 사랑하고 조국보위를 최고의 영예로,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는 선군시대 조선청년들을 당할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고 총대와 더불어 귀중한 청춘시절을 빛내여가는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세상에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채히성

시대와 력사앞에 그 이름 자랑스러운것은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단위들이 수없이 많다.

청년영웅도로, 청년광산, 청년탄광, 청년작업반, 청년분조…

수백만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이 깃든것이라면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고 시대와 력사앞에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이 이 명칭들마다에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명칭과 친히 안겨주신 혁명의 홰불봉 그리고 뜻깊게 제정된 청년절과 청년의 이름으로 빛나는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도 뜨겁게 새겨져있습니다.》

혁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

바로 여기에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라나 혁명의 년대마다에 수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운 우리 청년들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소중히 어려있다.

돌이켜보면 증산경쟁운동의 첫 봉화가 타오른 건국의 첫 기슭에도, 천리마의 나래를 활짝 펴고 전후의 재더미를 헤칠 때에도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앞장에 있었다.

해주—하성사이 철길공사, 북부철길건설을 비롯하여 조국이 새로운 번영의 년대기를 펼칠 때마다 영웅적투쟁과 위훈의 력사를 수놓은 시대의 주인공들도 다름아닌 우리 청년들이다.

조국앞에 준엄한 난국이 조성되였던 시련의 시기 당의 믿음과 사랑이면 더 바랄것이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하고 부강조국건설의 재부들을 늘여가며 세인을 놀래우는 투쟁의 앞장에 선것도 청년들이였다.

정의감이 강하고 아름다운것을 열렬히 지향하는 젊은 시절이여서 우리 청년들의 긍지와 자랑이 그리도 큰것이였던가.

아니다. 절세위인들의 청년중시사상이 구현되는 이 땅에서 혁명의 전위투사로, 당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 빛나는 삶을 누리는 세대들이기에 우리 청년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드는 길에서 고난과 시련도 웃으며 헤치면서 기적과 위훈의 서사시를 자랑스럽게 엮을수 있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림없이 산도 바다도 단숨에 떠옮기며 그 길에서는 시련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을 믿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상들을 맡겨주시였던가.

청년영웅도로건설의 나날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청년들이 정신력의 강자로, 영웅으로 자라난 나날이기도 하였다.

하늘도 맑게 개인 주체89(2000)년 11월 어느날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완공된 청년영웅도로를 돌아보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우리 청년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과 눈물겨운 위훈의 력사를 더듬어보시는듯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이렇게 선언하시였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미더운 길동무이라고,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세상에 크게 자랑할만 한 영웅청년들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금방석에 올려놓아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어찌 그뿐이랴.

언제인가도 우리 청년들에 대하여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부어주시며 이런 훌륭한 청년들을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청년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가운데서도 제일 큰 업적의 하나이라고 뜨겁게 외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과 자랑찬 승리로 장식하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온 우리 청년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청춘, 그 부름과 더불어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새겨가는것인가.

사람들이여, 나라와 민족의 아름다운 꽃인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이 조국땅우에 일떠세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 나라 청춘들의 충정과 보답의 결정체임을 부디 잊지 마시라.

순결하고 피끓는 심장을 간직한 이 나라 수백만 청년전위들은 확신한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라는것을.

본사기자 리금분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

지난 4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장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발휘되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영웅적위훈을 청년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청년강국, 이 고귀한 부름에는 우리 청년들이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 시대의 선구자가 되여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기를 바라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강국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당이 새롭게 내놓은 시대어입니다. 우리 나라는 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입니다.》

청년강국이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강력한 청년전위조직과 수백만의 청년대군을 가지고있으며 그의 선봉대적, 돌격대적역할에 의하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부강번영하는 나라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수령결사옹위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봉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선군청년전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진취적이며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에 의하여 온 세상에 청춘의 기상과 위력을 떨치며 승승장구해나가는 전도양양한 나라이다.

우리 당이 밝힌 청년강국에 관한 사상은 사회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주체적견해와 관점에 기초하고 청년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조선혁명의 고유한 전통과 오랜 력사적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치가 구현되고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과 창창한 미래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는데 그 독창성과 정당성이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대국이나 강국에 대하여 인구, 령토, 자원,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자연지리적조건과 사회생활의 개별적분야의 발전정도를 놓고 말하여왔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잇닿아있는 근본문제, 청년문제를 옳바로 해결한 진정한 강국에 대해서는 론하지 못하였다. 청년강국건설, 이것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 길출한 령도자를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조국, 청년중시가 중대한 국사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실현할수 있는 위업이다.

우리의 청년강국은 청년들의 선봉대적, 돌격대적역할에 의하여 끊임없이 비약하는 나라이다.

청년들은 조국건설의 핵심력량이며 기본전투부대이다. 청춘의 열정과 투지가 용솟음치는 곳에서 기적과 전변이 일어나고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게 된다.

우리 조국은 빈터우에서 사회주의강국에로 솟구쳐오른 기적의 나라이다. 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전진하여온 우리의 부강조국건설의 자랑스러운 력사는 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미제를 때려부신 승리자의 기세로 전후복구건설에서 조선사람의 본때를 다시한번 보여준 불굴의 투사들도 우리 청년들이며 《청년사회주의건설자행진곡》을 높이 부르며 조국땅우에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청춘의 기념비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운 창조와 건설의 영웅들도 우리 청년들이다. 청년들의 불굴의 기개와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부족하였던 고난의 시기 강성국가건설의 도약대가 마련되고 인공지구위성이 하늘을 나는 민족사적기적도 창조될수 있었다.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 이것은 우리 당이 청년들에게 안겨준 고귀한 칭호이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 영예를 간직하고 반제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에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들마다에서 영웅적삶을 빛내여가고있다. 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성스러운 투쟁의 앞장에서 혁혁한 위훈을 새겨가는 이런 믿음직한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다.

우리의 청년강국은 건전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진 전도양양한 나라이다.

인간의 높이는 사상의 높이이며 청년들의 사회적가치이자 정신도덕적높이이다. 사상과 도덕이 건전하고 고상한 청년들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이며 청년들모두가 이런 풍모의 체현자가 된 나라만이 청년강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결한 의리심, 아름다운 도덕기풍은 조선청년들의 고유한 특질이다. 당의 구상을 꽃피우기 위하여 수도 평양을 떠나 심심산중의 발전소건설장과 사회주의협동벌, 수산전선과 새로운 개발지들에 달려나가고 외진 산골과 섬마을의 교단에도 찾아가며 남을 위해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고 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는것을 청춘의 값높은 영예로, 보람으로 여기는 미덕의 소유자들이 우리 청년들이다. 특히 20살 꽃나이에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고있는 《처녀어머니》의 소행은 우리 청년들이 지니고있는 고결한 인생관의 발현으로 된다. 집안일보다 나라일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고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들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오늘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에서 청소년들의 정신도덕적부패가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개인주의적인생관에 물젖은 자본주의나라 청년들이 타락의 길을 걷고있을 때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것을 청춘의 보람으로 여기는 미더운 새 세대들이 자라나고있다.

우리의 선군조선이야말로 끝없이 밝은 미래를 가진 청춘의 나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오수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흐르바쯔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8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네보이싸 꼬하로위츠 주조 흐르바쯔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흐르바쯔까대사관 성원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당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떨치자

력사도 위대하고 미래도 창창하다

뜻깊은 청년절!

우리 청년들에 대한 뜨거운 축복의 숨결로 달아오른 내 조국의 하늘가에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가 펄펄 나붓긴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저 성스러운 붉은 기폭과도 같이 한점의 변색도 없이 영광스러운 력사를 빛내이며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승리의 한길만을 달려온 우리 청년들처럼 존엄높고 행복한 청춘들이 이 세상 그 어디 있으랴.

백두산악처럼 억센 기상, 내 조국의 하늘처럼 그지없이 맑고 아름다운 눈동자에서 우리 인민은 주체적인 조선청년운동의 위대한 력사와 창창한 미래를 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귀중한 유산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돌이켜보면 《ㅌ.ㄷ》에서 닻을 올린 우리 혁명은 피끓는 청춘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왔다.

일찌기 청년운동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청년강국건설력사로 빛나고있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승리를 안아온것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워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떨친것도, 전설속의 천리마를 타고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의 기적을 창조한것도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청년들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억세게 키우시여 청년강국의 억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세월과 더불어 끝없이 빛을 뿌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청년운동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 더욱 줄기차게 흐르게 되였다.

청년동맹에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도록 해주시고 청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안겨주시며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많이 발표하시여 청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친히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수여해주시며 청년들을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신것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최상최대의 믿음이였고 사랑이였다.

그 사랑, 그 믿음은 그대로 기적과 위훈을 낳았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와 더불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시대의 전형으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들로 자라났던가.

김광철, 정성옥, 유경화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영웅들이 태여났고 청년영웅도로건설장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전투장들에서 위훈의 창조자들의 대부대가 자라났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미풍선구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되였다.

참으로 조선청년운동사의 갈피마다에는 청년동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력사와 전통은 계승해야 빛난다.

오늘 우리의 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선군태양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청년강국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청년중시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조국보위와 부강조국건설에서 선군조선청년전위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대고조전투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청년들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넋을 심어주시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 바친 청년들을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온 나라 청년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들로 억세게 키워주는 자양분으로 되고있으며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무한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청년운동의 진두에 높이 모신 내 조국땅에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노래가 선군청년전위들의 삶의 주제가가 되여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할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그렇다.

조선청년운동은 력사도 위대하고 미래도 창창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백두에 뿌리를 둔 주체의 조선청년운동은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윤 명 철

청춘은 위훈, 위훈은 청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춘의 보람찬 삶은 창조적로동과 혁신적위훈으로 빛나야 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마냥 세차게 퍼덕이며 창공을 붉게 물들이는 붉은 기폭들이 바다를 이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은 말그대로 청춘의 기백과 열정, 위훈의 상징으로 가슴벌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받은 이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건설의 신화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1호발전소언제건설장에서 지난 시기 한해에 진행하던 평균타입량의 5.5배, 최고타입년도보다는 2.2배이상의 콩크리트치기실적 기록!

2호발전소건설장에서 기본대상인 물길굴피복공사가 뜻깊은 전승절에 빛나게 결속, 발전기실과 부속건물 등 전반적인 건축공사들이 96%계선 돌파!

1호발전소언제의 평균높이가 4월말에 비하여 30여m나 우뚝 솟아올랐고 눈깜박할 사이에 아담한 살림집들이 일떠선 전변을 놓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 자랑찬 영웅적위훈의 바탕에는 과연 무엇이 놓여있는것인가.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여 돌격대원들을 구원하고 우리곁을 떠나간 평양시려단의 원정철동무,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전투장을 떠나지 않은 평양시려단의 리동철동무, 위기일발의 순간 서슴없이 한몸을 내대여 귀중한 설비들을 구원하고 두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평양의 중앙병원으로 후송되였지만 몸이 추서기 바쁘게 밀차에 몸을 싣고 안해와 함께 전투장에 다시 달려와 경제선동을 벌리다가 생을 마친 평양시려단의 김춘남동무, 뜻밖에 갱이 물에 잠겼을 때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를 부르며 떼를 무어 굴진을 보장하고 72시간동안 물푸기전투를 벌린 돌격대원들…

이런 고결한 정신력에 바탕을 두었기에 그들의 위훈이 그리도 값높은것이 아닌가.

우리는 백두청춘들을 온 세상에 끝없이 자랑하고싶다.

청춘은 위훈, 위훈은 청춘!

바로 이것이 백두에서 폭풍쳐온 나라에 메아리쳐가는 선군청년전위들의 고결한 투쟁의 노래이고 백두산대국을 빛내이는 벅찬 대고조전투장들에 새겨지는 백두청춘들의 값높은 삶의 자서전이 아니겠는가.

허 일 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황해북도려단의 돌격대원들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청년분조원들을 적극 내세워주어

정주시 일해리당위원회에서는 청년분조원들을 적극 내세워주어 그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맡은 농사일을 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리당비서를 비롯한 리당일군들은 자주 청년분조에 내려가 청년분조원들의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주는 사업을 앞세웠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청년분조원들의 침실을 더 잘 꾸려주고 문화기재들을 마련해주었으며 텔레비죤수상기를 비롯한 문화기재들도 널리 리용할수 있게 해주었다. 여기에 고무된 분조장 최경일동무를 비롯한 청년분조원들은 후방사업토대도 자체로 튼튼히 꾸리고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도 그쯘히 갖추어나갔다.

청년분조합숙이 잘 꾸려지고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군중체육활동과 군중문화오락사업도 활발히 진행되니 청년분조원들은 합숙을 소중히 여기게 되였고 농사일에서도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게 되였다.

리당위원회의 깊은 관심속에 청년분조는 농사일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로농통신원 림 영 남

수필

청년들에 대한 부름을 놓고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주력군, 선군청년전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 선군혁명의 척후대, 익측부대, 백두청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언제인가 한 문필가는 자기 글에서 이렇게 썼다.

시대어는 생활과 투쟁속에서 태여나 널리 쓰이면서 당시의 시대상과 인민의 마음 등을 방불하면서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시대어를 가리켜 력사어라고도 하고 한 시대를 들여다보게 하는 창문이라고도 말하는것이다.

또 다른 문필가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대명사는 공통된 하나의 뜻을 가진다. 다시말하여 서로가 리해되고 공인해야만 대명사라고 불수 있는것이다.

이 말들을 다시금 음미해볼수록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낳은 시대어들, 대명사들이 많은 조국에서 사는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긍지높은 청년들이라는 격정이 가슴에 차오른다.

시대어와 대명사에는 력사가 비끼고 시대가 비끼며 미래가 비낀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태양을 옹위하는 별이 되여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왔으며 어머니 우리 당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그 품속에서 청춘의 값높은 삶을 끝없이 빛내이였다.

위대한 한별 만세를 부르며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의 격전장마다에 청춘의 더운 피를 뿌리며 조국해방을 안아온 항일혁명투사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1950년대 영웅전사들과 당의 부름을 심장으로 받들고 산으로, 바다로, 새로운 개발지들로 달려나간 천리마시대의 청년들, 준엄한 사회주의수호전의 전구마다에서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온 선군시대의 청년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청년들도 많지만 빛나는 시대어, 값높은 대명사들을 이토록 많이 가진 나라와 청년들이 그 어디 있으랴.

온갖 부정의와 탐욕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패륜패덕이 범람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버림받고있으며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나고있다.

이 얼마나 하늘땅차이인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시대어, 대명사들을 불러보느라면 강성국가건설에서 위훈을 떨쳐가는 미더운 그들의 모습이 군상처럼 안겨온다.

선군혁명의 제일선참호를 지켜선 영웅적인민군병사들, 하늘로 치솟아오를 드높은 포부와 리상을 안고 성스러운 백두전구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백두청춘들,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는 청년미풍선구자들, 대고조전역에서 위훈을 떨쳐가는 기적의 창조자들…

위대한 태양기 휘날리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곧바로, 오직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속에 청년강국의 시대어, 대명사들은 끝없이 태여나게 될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가슴 끓어번진다.

정녕 우리 청년들에 대한 시대어와 대명사들, 그것은 정녕 당과 수령이 우리 청년들에게 안겨준 가장 고귀한 표창이고 조국과 인민이 주는 가장 값높은 훈장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채 인 철

억센 기둥감을 키우는 훌륭한 밑거름

형제산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훌륭한 청년들!

이것은 형제산구역안의 청년들에 대한 이곳 인민들의 평가이다.

들끓는 대건설장들과 협동벌마다에서 언제나 앞장에서 내달리는 위훈의 창조자들, 사회와 집단을 위해 미풍을 꽃피워가는 미더운 젊은이들을 형제산구역의 인민들은 훌륭한 청년들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고있다.

훌륭한 청년들, 이 부름과 더불어 뜨겁게 안겨오는 모습들이 있다.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듯이 이런 끓끓한 청년들의 뒤에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형제산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청년교양에 항상 머리를 쓰고 품을 들이며 청년동맹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 주목을 돌리고 청년들이 활개치며 위훈을 세울수 있도록 각방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는 글발이 있다.

《청년들을 사랑하라!》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체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이 글발은 그대로 그들의 심장의 박동이 되고 숨결이 되였다.

어머니의 정과 사랑을 안고 당일군들이 찌어온 발자욱, 그 길우에 펼쳐진 가슴뜨거운 화폭들은 그 얼마였던가.

지금도 사람들은 지난 2월 한처녀돌격대원을 위해 구역당책임일군이 얼마나 뜨거운 혈육의 정을 바쳤는가를 잊지 않고있다. 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돌격대처녀, 맞아줄 혈육도 없는 집으로 들어설 때 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으랴.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줄이야.

바로 구역당책임일군이였다.

그런 사랑속에 휴가기간을 즐겁게 보내고 어느덧 돌격대로 떠나는 날이 왔다.

새옷을 비롯한 갖가지 생활필수품들과 도중식사까지 한가득 안겨주며 앓지 말고 일을 잘해 혁신자가 되여 돌아오라는 책임일군의 당부에서 처녀는 친어머니의 정을 느끼며 끝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그 처녀만이 아니였다.

책임일군의 손길에 떠받들려 당원으로, 청년동맹일군으로, 당일군으로 자라난 청년들은 그 얼마이며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용약 대건설장에 달려나가 혁신자로 이름떨치는 청년들은 또 얼마인가.

구역당일군들도 책임일군의 뒤를 따라 청년들속으로 들어갔다.

그만큼 위훈자, 혁신자로 자랑떨치는 청년들의 대오는 나날이 늘어만 갔다.

자식을 억세게 키우는것은 어머니들의 하나된 지향이다.

지난 4월 천남남새전문협동농장의 논들에 보통강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사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길이만 해도 수천m나 되고 많은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이 공사를 전문학교와 고급중학교졸업생들로 하자는 책임일군의 제의에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갓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로 그것도 며칠동안에 끝내야 한다니 그럴 만도 하였다. 그러나 책임일군의 생각은 달랐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온실의 연약한 꽃이 아니라 모진 광풍에도 드놀지 않는 억센 거목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청년들도 실천투쟁의 용광로속에서 단련되여야 나라를 받드는 훌륭한 기둥감이 될수 있다.

이러한 결심밑에 그는 해당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짧은 기간에 공사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는 투쟁의 용광로속에서 청년들의 마음도 자라났다.

이뿐이 아니다. 3개 농장의 청년작업반과 모든 단위의 청년학교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번듯하게 꾸려준것을 비롯하여 청년들을 위해 기울인 구역당일군들의 진정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형제산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

전국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기풍이 차넘치게 할 때 청년강국의 위용은 더욱 힘있게 과시될것이다.

한 영 철

사탕무우를 많이 심어 덕을 본다

장진군에서

무슨 일이나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어야 덕을 볼수 있다. 몇해전부터 사탕무우재배를 근기있게 하여 그 덕을 보기 시작한 장진군의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직무에 완전히 정통하고 모든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깐깐하게 조직전개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갈줄 알아야 합니다.》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군에서 사탕무우를 재배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으로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 해를 넘기며 사탕무우재배를 직심스럽게 해왔다.

이들은 장진지방의 기후풍토에 맞는 사탕무우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좋은 경험을 쌓았다.

특히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탕무우재배에 머무르지 않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식료공장에 사탕생산공정까지 꾸려놓은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사탕무우농사가 실지로 인민생활에 덕을 주는 농사로 되게 하자면 가공문제를 공업적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사탕생산공정을 꾸리는데 달라붙었다.

장형봉, 박동식동무를 비롯한 군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여러 시, 군들을 찾아가 사탕생산공정을 꾸린 경험을 배워오고 식료공장일군들,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설계도면을 그려가면서 사탕생산공정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박종구동무를 비롯한 식료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세척, 우림, 정제, 려과, 건조 등 공정별에 따르는 설비와 탕크, 관류들을 자체로 제작설치하고 시험생산을 진행하였다. 여러차례의 시험생산끝에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사탕가루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사탕무우는 경제적실리가 큰 작물중의 하나이다. 사탕을 생산한 다음 부산물로는 향료, 알콜 등을 만들며 찌끼와 줄기, 잎, 잔뿌리는 집짐승먹이로 리용된다.

군에서는 사탕무우로 군안의 사탕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사탕무우가공문제가 풀린데 맞게 사탕무우농사에 더욱 큰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은 사탕무우농사적지를 바로 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읍협동농장, 백암협동농장, 신대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김매기와 후치질, 비료주기, 병해충피해막이를 깐지게 하고 앞선 단위의 경험을 배우면서 높은 생산의욕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사탕무우농사를 하고있다.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사탕무우재배와 가공을 근기있게 내밀어 사탕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고있는 장진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일본새는 본받을만 하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 동 석

수산자원보호증식은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와 협동단체일군들은 수산자원보호증식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나라의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지금 세계적인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획량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있다. 때문에 많은 해양국들에서는 연해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바다동식물배양에 힘을 넣으면서 담수양어, 바다양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나라별수산업발전의 평가기준도 지난 시기와 달리 수산물생산량이나 물고기잡이기술이 얼마나 앞섰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는가에 따라 규정되고있다.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이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산자원보호증식과 관련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그 실현에서 나서는 대책적인 문제들을 밝힌 주석명령까지 하달하시였다. 특히 정착성어족과 회유어족이란 어떤 물고기들인가, 매 어족들이 알낳는 때는 어느 때이며 어떤 어족은 어느 때에 잡지 말아야 하는가, 왜 큰 물고기만 잡고 새끼물고기는 잡지 말아야 하는가, 수산자원을 보호증식시키지 않고 닥치는대로 잡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국가적인 조치로 수산자원을 보호증식시키는데서 나서는 대책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프시여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여러 수산기지들을 찾으시여 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바다가로부터 두메산골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끼물고기들을 더 많이 키워 강하천과 호수, 바다에 놓아줄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하고있다. 해마다 4월과 7월을 수산자원보호월간으로 정하고 온 나라가 떨쳐나 이 사업을 부강조국건설과 후대들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수산정책으로 틀어쥐고 관철하여왔다.

자연지리적으로 유리한 강하천과 바다가들에 새끼물고기생산기지, 인공배양장들을 그쯘하게 갖추고 해마다 수많은 새끼물고기와 바다동물들을 강하천과 호수, 바다에 놓아주고있다. 수산자원보호증식의 기초로 되는 인공알받이기술, 바다동식물배양기술에서도 앞선 나라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며 나가고있다.

일편단심 당을 따라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물고기가 더 많이 차례지게 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수산부문을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산자원보호증식이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 사업인 동시에 자기자신을 위한 일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 양식시설물만 들어넣기와 돌넣기, 인공어초조성, 새끼고기넣기와 바다동식물배양을 비롯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어로공들을 비롯한 각지 근로자들은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승인없이 물고기를 잡거나 바다동식물들을 생산하지 말며 정해진 시기와 그물코의 크기를 어기고 물고기를 잡아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산자원보호증식은 그자체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고있다. 해안선이 길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수산부문의 힘만으로는 이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수 없으며 광범한 군중이 발동될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각지 일군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근로자들속에 당의 수산정책과 수산자원보호증식과 관련한 국가의 법규범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최대로 발동하여야 한다.

수산자원보호증식과 물고기잡이를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하는것 또한 중요하다. 해당 부문에서는 과학적인 수산자원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수산물생산규모를 정해주며 어디에서는 물고기잡이를 금지하고 또 어디에서는 서식시키며 어느 지대에서는 해삼이나 전복, 밤조개, 미역, 김 등이 잘 자라니 보호증식해야 한다는것과 같은 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감독통제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해당 부문에서는 어종별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여있는 시기에 물고기를 잡거나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금지된 어구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들의 서식조건을 파괴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수산자원보호증식에서 나서는 선진기술들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이 사업을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수산부문을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하는데 참다운 애국의 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빛나게 관철하며 조국의 바다와 강하천, 호수들에 물고기떼가 욱실거리게 하기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수산성 국장 김 승 철

모두다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어제도 오늘도 병사의 자세로 조국을 받들어가는 참된 일군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송원군산림경영소 지배인 안정묵동무

조국의 북방 자강도의 송원땅에 들어서면 무성한 숲이 장관을 이룬 산발들을 볼수 있다. 이깔나무숲, 잣나무숲…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 산발마다에는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이악하게 실천해온 한 제대군관의 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다.

그가 바로 송원군산림경영소 지배인 안정묵동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대군인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심장에 간직하고 병사시절의 그 모습, 그 본때, 그 기풍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안정묵동무는 지배인으로 일해오는 지난 7년간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빈터나 다름없던 경영소에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어놓았다. 그는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켜 해마다 1 400여정보의 산에 400여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비배관리를 짜고들어 사름률을 높이였으며 1만여정보의 산림을 복구하여 나라의 재부를 늘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스스로 내린 돌격구령

지금으로부터 7년전 6월 어느날 군안의 양묘장들과 산림감독분소들의 실태를 료해하고 돌아서는 안정묵동무의 안색은 밝지 못했다.

차에 올랐으나 어설픈 나무모발들이 눈앞에 또다시 밟혀왔다.

살뜰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빼기발들에서 애처롭게 자라던 나무모들이며 한적하기 그지없는 감독분소건물들…

차창밖을 바라보느라니 이번에는 벌거벗은 산들이 가슴아프게 안겨들었다.

군사복무시절 늘 마음속으로 그려보던 고향산천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품고 넘으신 력사의 발자취가 어려있고 우리 장군님께서 자강도는 고난의 행군시기 자신에게 정든 고장이라고 하시며 끊임없이 이어가신 잊지 못할 자욱들이 스며있는 고장이였다.

련련히 뻗어간 산발들은 그에게 이렇게 속삭이는듯싶었다.

(대대장 안정묵, 새로운 전투명령이 내렸다. 돌격앞으로!)

그는 경영소의 면모를 일신시킬 결심을 하였다.

병영에서부터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표현되듯이 산림경영소의 모습은 곧 군산림을 담당한 종업원들의 정신상태라는것이 그의 립장이였던것이다.

엄마후 경영소속보판에는 《대담하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자!》라는 글발이 나붙었다. 모든 일이 통이 크게 벌어졌다. 내세운 목표는 건물보수가 아니라 새 건물건설이였다. 안정묵동무의 대담한 작전과 지휘, 이신작칙은 종업원들이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다. 고요하던 경영소구내에 혁명군가가 높이 울리고 건설전투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되였다.

경영소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내밀면서 안정묵동무는 기본임무를 잊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신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고 그는 앞길이 확 트이는것 같았다.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군산림을 복구만 할것이 아니라 후손만대에 넘겨줄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꿀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여기에 있었다.

그는 곧 당조직과 합의하고 옵으로부터 80여리 떨어진 회양지구에 모체양묘장을 건설할것을 결심하였다. 밤을 새워가며 모체양묘장의 전망도를 그렸다.

그가 고심하여 그린 전망도를 본 종업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야외재배장과 나무모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들을 갖춘 생산기지들과 태양열나무모온실, 집짐승우리들과 살림집들…

제대군인종업원들로 조직된 돌격대가 회양지구로 달려나갔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시작되였다. 전투장의 곳곳에는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고 확성기에서 울리는 혁명가요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돌격대원들은 파고파내도 끝이 없을상싶은 돌들을 말끔히 들어내고 맞들이와 질통전을 쉬임없이 들이대였다. 어느날 저녁이였다. 나무그루터기에 바줄을 매고 그 한끝을 자기의 어깨에 걸려던 안정묵동무가 갑자기 한손으로 몸을 부여잡은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함께 일하던 김영철동무가 다급히 달려와 근심스레 말하였다.

《또 속탈이 도지는게 아닙니까. 어제 지원물자를 가지고왔던 광성이 어머니도 걱정하던데…아무래도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힘들게 허리를 편 안정묵동무는 비지땀이 흐르는 얼굴에 미소를 그리며 말하였다.

《떠들지 마시오. 전투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휘관이 쓰러져서야 되겠습니까.》

전투장에 휴식이 선포되였다. 둘러앉아 흥겨운 오락회판을 펼치던 돌격대원들이 가까이로 다가오는 안정묵동무에게 노래를 청하며 박수를 터치였다. 그러는 돌격대원들에게 안정묵동무는 말하였다.

《노래보다 이야기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떼고난 그는 아득히 뻗어간 산발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말을 이었다.

그가 전연초소의 대대장을 할때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군단산하 어느 한 부대를 찾으시였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그는 격동된 심정을 누를길 없었다. 더우기 지휘관들로부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수림화, 원림화가 잘된 병영구내를 바라보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시면서 조국이 통일되면 이곳에 인민들의 휴양소를 짓자고 하시였다는 교시를 전해들으며 그는 가슴속에 차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는 다 몰랐소. 그러나 조국의 산림초소를 지켜선 오늘은 조금이나마 알것 같소. 선군으로 지켜가는 내 조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귀중한 재부로 가꾸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말이요.》

그러며 이 땅을 지켜 아낌없이 바친 청춘시절이 귀중하다면 그 시절처럼 이 땅을 가꾸자고, 온 세상이 부러웁게 우리 후대들의 삶의 풍요한 터전이 되고 귀중한 재부가 되게 가꾸어 넘겨주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지배인의 심중에 간직된 그 마음이 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도 뜨겁게 흘러들었다.

힘겨운 날과 달이 흘렀다. 이나날에 1만 8 000여㎥의 돌과 나무그루터기를 들어냈다니 전투의 간고성을 더 말해서 무엇하랴.

10여정보의 자연흐름식관수체계가 된 야외재배장과 태양열나무모온실, 회전분무식원형삼목장, 나무모영양단지생산기지, 과학기술보급실, 종업원살림집, 집짐승우리 등 물질기술적토대를 훌륭히 갖춘 종합적인 모체양묘장은 어제날의 병사들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일떠세운 자랑찬 창조물이였다.

안정묵동무는 자신뿐아니라 종업원 한명한명이 당을 받드는 길에서 전사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뜨거운 정을 기울이였다.

어느날 사업상용무로 한 농장에 갔던 안정묵동무는 그곳 일군들로부터 여러해전에 본의아닌 일로 하여 농장에 와서 일하고있는 한 산림감독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그날 밤 안정묵동무는 생각이 깊었다. 그도 어제날의 병사였다.

정말 그의 마음마저 푸른 숲과 멀어진것인가.

그후 안정묵동무는 그가 일하고있는 농장을 자주 찾았다. 그에게 어제날의 모습을 되찾고 함께 산림을 지켜서자고, 조국이 어제날의 병사들 산림초소로 부르고있다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가 당의 믿음에 의해 산림감독원대렬에 다시 들어섰을때 안정묵동무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그러한 그가 군의 산림복구를 위한 전투현장에서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 동지들을 구원하고 생을 마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 가슴아파한 안정묵동무였다.

《산림복구를 위한 길에 바쳐진 그의 값높은 삶을 잊지 맙시다. 저 산들에 그의 넋을 심어갑시다.》

이것은 안정묵동무가 한 인간의 삶을 잊지 못해서만 한 말이 아니였다. 그 말속에는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생을 마친 종업원을 영원한 전우로 가슴에 새기고 그 삶을 빛내여가려는 뜨거운 동지애가 깃들어있는것이다.

오늘도 변함없는 대답소리

안정묵동무가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늘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는것이 있다.

병사시절에나 대대장시절에나 변함없이 울려퍼진 《알았습니다.》의 대답소리이다.

그가 제대되여 지배인으로 일해온 나날은 그 대답속에 당정책의 운명을 걸고 불같은 실천으로 조국을 받들어온 나날이였다.

경영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회양지구에 모체양묘장이 번듯하게 일떠서게 되였을 때였다. 안정묵동무는 양묘장의 지력을 높이는 문제를 두고 생각을 많이 하였다.

양묘장들의 면모가 일신되고 나무모생산은 이전에 비할바없는 수준에 있었다. 하지만 지력을 높이는 문제는 소홀히 할수 없었다. 나무모를 얼마나 실하게 키워내는가 하는데 따라 산에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도 보장할수 있었던것이다.

이 사업에서도 지휘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안해와 함께 많은 품을 들여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경영소에 내왔다.

지배인의 모범은 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는 불씨로 되였다. 모두가 너도나도 떨쳐나 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안정묵동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군중적운동으로 풀베기전투도 본때있게 벌릴 결심을 내리였다.

양묘장주변의 산들에서 풀베기전투가 시작되였다. 안정묵동무는 구태여 따로 선동을 하지 않았다. 앞채를 메고 나가는 그의 모습이 그대로 정치사업이 되여 종업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전투장의 열기는 나날이 달아올랐다. 엄마후에는 종업원들의 가족들이 달려왔고 산리용반원들도 떨쳐나 전투장에 뛰여들었다.

이렇게 해마다 여름철이면 회양리를 비롯한 여러 양묘장들에 베여들인 수백t의 풀이 질좋은 거름으로 되여 나무모발들의 지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종자문제를 두고 안정묵동무가 기울인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종업원들의 마음을 울리였던가.

어느해 1월 안정묵동무는 경영소의 한 종업원과 함께 함경남도의 어느 한 군으로 떠났다. 얼마후 그들이 애써 마련한 500여kg의 이깔나무종자를 차에 싣고 떠나려고 할 때였다. 그들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듯 날씨가 몹시 기승을 부리였다. 눈이 그칠새없었고 이제 가야할 길에는 얼음이 깔려있었다. 함께 갔던 종업원이 안정묵동무에게 근심스레 물었다.

《이런 날에 꽤 설한령을 넘을수 있겠습니까?》

안정묵동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도 설한령이 어떤지 잘 알고있었다.

해발높이 1 400여m, 랑림산줄기의 제일 높은 이 령밑에는 깊은 골짜기와 절벽이 많았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유명한 곳이였다. 안정묵동무는 설한령에서 눈길을 떼며 그에게 말하였다.

《군사복무시절 우리가 배운것이 무엇이겠소. 명령앞에서 오직 알았다는 한마디였지. 그때의 그 정신이면 어려울게 없소.》

얼마후 그들이 탄 차는 설한령을 향하여 한치한치 올랐다. 때없이 지치며 미끄러져 아찔한 벼랑과 마주하기를 그 몇번…

그들이 설한령을 넘는데 걸린 시간만 해도 4시간을 헤아린다. 목숨도 서슴없이 내걸었던 그 4시간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길에서는 물러설 자리가 없으며 죽어도 영광이라는 안정묵동무의 고결한 인생관이 뜨겁게 맥박친 순간순간이였다.

우리는 여기에 안정묵동무가 지배인으로 일을 시작한 다음해 나무를 심을 때의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한다.

그날 나무모보장문제로 양묘장에 갔다가 나무심기구역에 다달은 안정묵동무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 종업원들이 나무모를 손에 든채 눈꽃이 떨어지고있는 하늘을 쳐다보며 망설이고있었던것이다. 누군가가 《이런 날씨에 나무를 심어보긴 처음인데 꽤 나무들이 살아날가.》하는 말이 그의 귀전에 들려왔다.

안정묵동무는 가슴이 답답해났다.

사실 이곳은 나무라고는 전혀 볼수 없는 벌거벗은 산판이여서 누구나 바라보면서 가슴아파했다. 그래서 봄철이 오면 제일먼저 나무를 심자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던 종업원들이였다.

그는 격해지는 마음을 애써 누르고나서 단호히 말했다.

《일정계획대로 나무를 심읍시다.》

눈발이 점점 커졌으나 그는 주춤거리지 않고 배심있게 일을 내밀었다.

종업원들도 그를 따라 묵묵히 나무를 심어나갔다. 그날 함께 나무를 심으며 초급당일군이 들려준 이야기가 종업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던가.

《동무들은 지배인동무가 오늘을 위해 얼마나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다는 모를거요. 밤잠도 휴식도 잊고 사색을 거듭하며 기술지식을 터득하고…지배인동무가 본 참고서만 해도 사무실의 천정에 닿고도 남을거요. 그리고 현지에서 이 지대의 기후특성과 땅속온도까지 따져가며 오늘을 적기로 택한것이요.》

종업원들은 초급당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길을 들어 지배인을 찾았다. 그때 안정묵동무는 종업원들이 심은 나무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있었다.

후날 종업원들은 자기들이 나무를 심은 100정보에 나날이 숲이 무성해지는것을 보며 조국의 산림복구를 맡은 전투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안정묵동무는 이렇게 군안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데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바치였다. 그는 여러 지방들을 찾아가 스트로브스소나무와 참대버드나무 등 30여종에 150여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가져다 풍토순화시키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경영소를 번듯하게 꾸리는것과 함께 20정보의 비경지에 원료기지를 조성하고 문화후생시설, 종합축사와 버섯재배장, 양어장도 건설하여 종업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옵지구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전사자가족들의 생활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어 사람들로부터 우리 지배인으로 불리우고있다.

안정묵동무(오른쪽에서 세번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나라의 산림재부를 늘이기 위해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온 안정묵동무의 소행자료를 료해하시고 선군시대공로자의 값높은 영예를 안겨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안정묵동무처럼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으로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알심있게 가꾼다면 나라의 재부는 얼마나 풍성해질것이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또 얼마나 커질것인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현경철
신현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6일 웬 낌 꾸이 안전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공안성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세계자주화와 평화수호를 위한 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공적과 위인적풍모로 하여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선군절 55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포가 25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는 탁월한 선군령도로 사회주의조선의 강성번영과 백두산민족의 영원무궁을 위한 억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조국수호전에 바친 혁명선렬들의 삶을 끝없이 빛내여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결성 70돐 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우리 나라 팀이 중국팀을 2:0으로 이겼다

2015년 아시아축구련맹 19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 준결승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이 26일 중국 남경에서 진행된 2015년 아시아축구련맹 19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 준결승경기에서 중국팀을 2:0으로 이겼다.

조별련맹전에서 맞다는 팀들을 높은 정신력과 기술적우세로 압도하며 련전련승한 우리 나라 녀자축구선수들은 경기시작부터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중장거리련락에 의한 측면돌파와 역습속공으로 드센 공격을 들이대였다.

전반전 30분경 리은심선수가 통쾌한 머리받기로 첫 꼴을 성공시켰다.

후반전에 들어와 우리 선수들은 공격속도를 높이면서 상대팀을 더욱 압박하였다.

이악한 공뺏앗기로 중국팀의 공격을 차단하고 균형이 허물어진 순간을 리용하여 시원한 대각련락과 문전에서의 째인 결합, 위력한 차넣기 등으로 상대팀문전을 련속 위협하는 우리 선수들에 의해 좋은 득점기회들이 마련되였다.

경기시간 61분경 우리 팀의 리경향선수가 단독으로 돌입하면서 차넣은 공이 그대로 그물에 걸렸다.

중국팀은 잃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반공격을 시도하였지만 우리 팀의 든든한 방어진에 의해 거듭 좌절당하였다.

결국 우리 나라 팀은 2:0으로 중국팀을 이기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 폐막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가 폐막되였다.

토론회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세계 여러 나라 대학, 과학연구기관들의 권위있는 과학자들이 수학, 의학, 생명과학 및 농학분야에서 학술적으로 가치있고 의의있는 연구성과들을 교환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26일 폐막식이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토론회참가자들과 함께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먼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리국철이 폐막사를 하였다.

그는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한 이번 토론회에서 여러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교환하였으며 이 분야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경험들을 쌓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과학발전과 인류의 문명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김일성**종합대학과 여러 나라 대학의 학자들사이의 학술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토론회폐막을 선언하였다.

* *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 분과별토론회가 25일과 26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있었다.

토론회는 수학, 의학, 생명과학 및 농학분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여러 나라 대학, 과학연구기관들의 권위있는 학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토론자들은 《작용-각변수를 가지지 않는 해밀톤벡토르마당에 관한 KAM정리》, 《고뻰슈타인 사영모듈들에 의하여 유도되는 공액쌍》, 《불련속마감수익을 가지는 비동차 블랙-숄즈방정식풀이의 일반성질》, 《류산철에 의한 벼종자소독효과》, 《메기에서 발생하는 장염병원균의 분리동정 및 특성》, 《토양현탁액의 전기전도도에 대한 연구》, 《새로운 3D구조비교법을 통한 단백질구조의 계산학적예측》, 《천골-후두골척추교정과 몇가지 허리운동료법으로 요부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생당쑥지상부의 화학성분》, 《배양한 각막줄기세포를 리용한 각막상피손상환자치료》 등의 론문들에서 학술적문제들을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철도성 산하단위 로동자 김옥실동무의 가정

뜨거운 혈육의 정을 안고

영예군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위해주는것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도덕륜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리던 지난해 7월 어느날이였다. 영예군인인 리춘복동무의 집으로 급히 들어서는 한 녀인이 있었다. 철도성 산하단위 로동자 김옥실동무였다.

그는 《오늘이 춘복동지 아주머니생일이 아닙니까. 출장중에 있는 저의 세대주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찾아가 자기 인사도 전해달라고 몇번이나 전화를 걸어왔더군요.》라고 말하며 성의껏 준비해온 생일상을 차리는것이였다.

리춘복동무의 눈앞에는 친혈육의 정으로 이어진 날과 달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10년가까이 국가적인 명절날은 물론 때없이 집에 찾아와 생활에서 자그마한 애로나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진정을 기울이던 김옥실동무와 그의 남편인 정철우동무, 새 집에 이사했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가정용품을 준비해가지고 남먼저 찾아온 이들부부였다. 그리고 군사복무시절처럼 언제나 랑만에 넘쳐 생활하도록 새로 나온 도서들과 증폭기를 안겨주며 힘과 용기를 주던 이들이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리춘복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들의 진정에서 친혈육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맺어진 뜨거운 혈육의 정, 바로 그 힘이 있어 인간은 더욱 굳세여지고 이 땅은 더욱 아름다우며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백배해지는것이다.

리춘복동무와 그의 가정은 지난 20여년간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데 이바지할 일념안고 진귀한 꽃나무들과 꽃씨들, 관리도구들을 수많이 보내주고 원군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여 지난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정철우, 김옥실부부는 리춘복동무가 그날의 영광을 언제나 잊지 않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고있다.

본사기자

다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과학기술보급기지

얼마전 조국해방 70돐을 계기로 3대혁명전시관 과학기술성과전람관이 개관되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을 위한 우리 당의 혁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전람관은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체 인민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기 위한 선진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한 단위에서 창조된 과학기술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 나라의 전반적부문이 빨리 발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전자공업관에 꾸려진 과학기술성과전람관은 과학연구, 교육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단위들에서 새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과 첨단 및 지적제품들을 전시하여놓고 그 과학기술적내용과 기술경제적효과성, 도입경험 등을 광범히 보급하며 기술수요를 장악하고 필요한 기술교류도 활발히 진행할수 있도록 다기능화되여있다.

과학기술성과전람관이 꾸려짐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의 보급과 교류가 시간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활발히 진행될수 있는 또 하나의 거점이 마련되게 되였다.

과학기술성과전람관은 17개의 부문별전시대들로 구성되여있다.

조형예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세련되고 친근한감을 주게 형성된 전시대마다에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과 일군들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 충정과 애국의 열정이 력력히 깃든 600여종에 1 220여점의 첨단 및 지적제품들과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자기 얼굴이 뚜렷한 전시물들은 모두 전국적범위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축전과 전시회, 전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것들이다.

이렇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인민생활향상, 경제발전에서 의의가 큰 과학기술성과들을 집약화하여 전시하고 참관자들에 대한 해설과 기술자료봉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선진과학기술보급에서 사람들의 지식수준과 인식능력상차이로 인한 편향이 극복되고 그 효과를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새로 이룩되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부단히 보충갱신하여 전시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높아가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게 되였다.

전시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새 기술이 도입된 부분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 또한 완제품전시를 위주로 하던 이전과 다른 특징의 하나이다.

참관자들이 첨단 및 지적제품들을 유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만져도 보면서 관찰하고 파악할수 있도록 되여있는것도 인상적이다.

과학기술성과전람관은 기술교류의 중개자적역할도 수행하게 되여있다.

이곳에 꾸려진 첨단 및 지적제품교류판매장을 리용하여 전람판에 전시된 제품들을 기본으로 하는 교류를 진행하고있다. 이것은 개발단위와 개발자들의 새 기술창조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제품류통을 활성화하여 첨단 및 지적제품들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는데서 의의가 크다. 면담실도 훌륭히 꾸려져 해당 단위들사이에 기술봉사와 교류를 진행할수 있는 마당으로 되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새롭게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직관적으로 폭넓게 보여줌으로써 참관자들에게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주체조선의 과학기술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훌륭한 교양장소로 되고있다.

지금 이곳에 대한 높아가는 관심과 기대속에 참관자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3대혁명전시관 과학기술성과전람관은 앞으로 과학기술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고 모든 부문을 과학화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당당한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하게 될것이다.

강철웅

선군으로 지켜지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행복의 메아리 울려퍼진다

문수물놀이장에서

물소리, 웃음소리, 노래소리

사회주의는 어떻게 좋은가.

사회주의만세소리는 어디서 울려퍼지고있는가.

세계가 알고싶어하는 진실, 세상사람들이 듣고싶어하는 이 대답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솟아난 하나의 창조물을 놓고 마음껏 소리쳐 터놓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문수물놀이장!

날마다 키돋움하는 사회주의문명의 높이와 더불어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 너무도 깊이, 너무도 소중하게 자리잡은 행복과 향유의 세계이다. 하기에 이제는 문수물놀이장에서의 즐거운 시간이 누구에게나 평범하고도 례사롭게 흘러가는 생활의 한 단면으로 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굳이 평범하고도 범상한것에서, 흔연하고도 례사로운것에서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것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얼마전 문수물놀이장을 찾았던 우리는 삼복철도 지나고 새벽이면 선기가 도는 계절이지만 대동강기슭에 솟아난 물의 궁전, 물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싶었다.

물이 끓는 곳,

그렇다. 여기서는 물이 끓는다.

《보십시오. 물보다 사람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문수물놀이장을 찾아 분마다, 시간마다 늘어나는 사람들의 물결을 본다면, 실내와 야외의 수조마다에 차넘치는 어른이며 아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본다면 누구도 문수물놀이장 봉사원의 이 말을 과장된것이라고 탓하지 못하리라.

문수물놀이장은 건평이 무려 10여만㎡나 된다.

시원하게 트인 드넓은 공간에 수십개의 수조와 물미끄럼대, 체육시설이 그쯘히 갖추어진 야외물놀이장과 파도수조와 초음파수조 그리고 여러가지 한증방과 운동실을 비롯하여 물놀이와 몸단련에 좋은 각종 시설들이 들어앉은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

이처럼 거대한 물의 궁전 그 어느곳을 둘러보아도, 그 어디를 가보아도 좋다. 물놀이장의 곳곳마다 웃음꽃을 활짝 피운 사람들로 가득하고 넘치는 희열과 랑만으로 하여 가슴이 절로 벅차오른다. 문수물놀이장을 찾는 사람들가운데는 젊은이들은 물론 중년의 사람들과 로인들, 어린이들도 많다. 누구나 보기만 해도 뛰여들지 않고서는 못 견딜, 마음껏 헤가르며 마음껏 즐기지 않고서는 도무지 성차지 않을 맑은 물의 세계앞에서 젊은이면 어떻고 늙은이와 어린이면 어떠랴. 문수물놀이장의 모든것이 다 그러하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제일 많이 끌어당기는것은 물미끄럼대이다. 그 이름만 해도 급강하물미끄럼대, 무지개물미끄럼대, 관성렬차식물미끄럼대, 물결파물미끄럼대 등 이루 다 꼽을수 없다. 그중 관성렬차식물미끄럼대의 길이는 무려 200여m에 달한다.

봉사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아찔하게 솟은 급강하물미끄럼대에서 살같이 지쳐내리는 젊은이들, 뽀트를 타고 하늘로 두둥실 떠오르는듯 한 쾌감에 열림식물미끄럼대를 즐겨찾는 중년의 사람들,

그런가 하면 각종 유희기구들이 즐비한 아동종합물공원에서 물미끄럼대를 타며 좋아라 어쩔줄 모르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이채로운가.

해염과 물놀이, 물미끄럼대타기도 좋지만 벼랑타기와 탄력망, 롱구와 배구, 탁구 등 여러가지 체육활동을 마음껏 진행할수 있는 실내체육관도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흥성인다.

이뿐이 아니다.

문수물놀이장에는 이곳에서만 느껴볼수 있는 류다른 매력이 있다.

도시속에서의 해수욕!

인민의 편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당의 은정속에 듣기에도 보기에도 처음인 희한한 현실이 이제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생활로 된것이다.

백여리 물길을 타고 흘러온 바다물속에 잠겨 시간가는줄 모르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문수물놀이장에 꽃펴나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은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새겨주는것인가.

문수물놀이장에 넘치는 물소리, 웃음소리, 노래소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느끼는것인가.

잊지 못할 하나의 화폭이 우리의 눈앞에 우렷이 떠오른다.

두해전 뜻깊은 10월 몸소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시고 문수물놀이장이 당이 바라는 기준에 도달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물놀이장이 문을 열면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하루빨리 준공식을 진행하여 인민들이 찾아와 마음껏 휴식하게 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그때 다는 몰랐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이 세상 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문수물놀이장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최상급의 선물로 마련하시려 건설장을 낮에도 찾으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찾으시며 형성안만 해도 무려 113건을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로고와 심혈을.

그렇게 마련된 인민의 향유물, 그렇게 솟아난 사랑의 궁전이다.

세상에 화려함과 사치함을 자랑하는 물놀이장이 또 있다고 하라. 그러나 아무리 억만금으로 빚어놓은 현란한 놀이장이라고 해도 누구나 갈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인민의것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평범한 사무원도, 로동자와 농민도 누구나 찾을수 있고 누구나 즐길수 있는 문수물놀이장!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가 흉내낼수 없고 자본주의 《문명》과 《향락》이 머리숙이지 않을수 없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참모습이 있고 사회주의 우리 생활의 아름다움이 있다.

가증스러운 원쑤들이 제아무리 침략과 살륙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려고 미쳐날뛰여도 선군으로 다져지고 승리해가는 이 땅에서는 언제나 향유의 기쁨과 행복만이 차넘친다.

문수물놀이장에 울려퍼지는 물소리, 웃음소리, 노래소리…

그렇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듣고있다.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펼쳐주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따사로운 어버이품,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를,

내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퍼지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를!

글 본사기자 리남호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문수물놀이장에서 사람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것이 어찌 물놀이시설들이라고만 하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또 오십시오!》…

물놀이장에서 또한 이채롭게 눈에 띄우는것은 웃음꽃넘쳐나는 곳곳에서 마크를 단 산듯한 봉사복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친절히 안내하며 봉사를 해가는 봉사원들의 모습이다.

실내물놀이장은 물론 야외물놀이장의 매 수조마다에서 확성기재를 들고 손님들에게 봉사하는 그 모습들은 얼마나 인상적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여있습니다.》

청량음료점들과 실내체육관, 운동실, 한증방, 리발실, 미안실, 안마실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에도 사람들의 걸음이 그칠새 없다.

물놀이로 한껏 즐기고 미용실에서 친절한 봉사를 받으며 머리모양을 다듬어가는 녀성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쳐나고있었다.

야외물놀이장에서 기쁨에 넘쳐있는 모습들을 일별하며 걸음을 옮기던 우리가 시선을 모은것은 실내물놀이장 로대였다. 해가림막들이 펼쳐져있는 로대우에는 물놀이로 웃음꽃을 피운 손님들이 올라와 청량음료를 들고있었다.

그곳 봉사원의 말에 의하면 로대에는 지난 6월부터 청량음료점을 차려놓고 봉사를 새로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좋아한다고, 더우기 야외물놀이장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수 있어 손님들의 발길이 그칠줄 모른다는것이였다.

로대에 올라 봉사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희로 달아오른 야외물놀이장의 전경을 부감하느라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흥그러워졌다.

실내물놀이장에서 우리와 만난 봉사원 리충별동무는 자기들이 입고있는 봉사복과 봉사마크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깃들어있다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오시여 이곳 봉사원들과 관리원들의 복장도 잘 만들어주라고 하시면서 문수물놀이장의 마크를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복에도 달아주고 록전기재에도 새겨주라고, 그렇게 되면 평양시에 또 하나의 새로운 풍치가 생겨날것이라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봉사복과 봉사마크에서도 또 하나 생겨나게 될 새로운 풍치를 그려보시며 행복의 무릉도원을 마련해주신 다심한 사랑이 넘쳐나는 문수물놀이장이였다.

우리는 생각했다.

문수물놀이장의 어디에나 그토록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어 봉사자들의 얼굴에도, 손님들의 모습에도 한없는 긍지와 행복이 넘쳐나는것이라고.

본사기자

훌륭한 봉사, 누구나 찬사

산과 강, 바다가 모인 곳

강물이 흐른다. 바다가 설레인다. 푸르른 물결우에 비끼여 넘실거리는 저 모습은 산이런가, 바위런가.

흐름길수조의 물결이 금강산의 기암절벽과 얼음산을 방불케 하는 인공바위산을 꿰질러흐르고 파도수조에서는 창창 기슭을 치는 파도소리가 들려오는데 서해의 푸른 물이 철철 흘러드는 바다물수조에서 넘쳐나는것은 마를줄 모르는 인민의 기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푸른 물결 출렁이는 파도수조에서 몸을 식히고 인공바위산에 올라 거품이 부글거리는 시원한 맥주로 목을 추기던 로인이 우리에게 말했다.

마치도 해수욕을 하고 금강산에 오른 기분이라고, 10년은 더 젊어지는것 같다고. …

서해의 바다물이 사시장철 흘러들고 동해의 명승이 그대로 펼쳐진 인민의 물놀이장,

그렇다.

산도 강도 바다도 모두 여기에 모였다. 바라보는 순간에 한여름의 무더위가 말끔히 가셔지는듯 한 풍경이건만 보면 볼수록 뜨겁게 달아오른다. 사회주의문명의 절정에 인민을 세워주신 위대한 어버이를 그려보는 우리의 심장이.

멀지 않은 어제였다. 바로 이 자리에 꾸려졌던 물놀이장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던 그날들이.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나날에도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던 어제날의 문수물놀이장에서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현대적인 물놀이장을 마련해준 우리 당의 고마움을 노래했다. 하지만 어이 알았으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심정을.

무적의 전쟁억제력을 마련하여 강성번영의 만년담보를 이룩하시던 그 시기에 벌써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현대적인 종합물놀이장을 꼭 건설해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속 깊은 뜻을 새겨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이 이 땅에 무겁게 드리워있던 때 몸소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발기하시였다.

장군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종합물놀이장을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였으면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셨으랴. 인민을 위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속에 자랑높은 명산의 기암절벽이 이곳에 재현되였고 갖가지 수조들이 푸른 강, 드넓은 바다의 모습으로 여기에 펼쳐졌다. 장구한 세월의 흐름이 이루어놓은 모든 아름다움을 초월하여 자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수 없는 절경이 흘날리는 물보라속에, 환희로운 웃음속에 안겨오는 문수물놀이장에서 우리는 가슴부푸는 긍지를 안고 웨친다.

절승의 경개를 찾아 사람이 산으로 가고 강으로, 바다로 찾아가던 어제날의 문명이여, 부러워하라.

위대한 어버이의 손길을 따라 산과 강, 바다,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이 인민을 찾아오는 우리의 사회주의문명을!

본사기자 승철진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문수물놀이장의 일군들과 안내원들이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에게서 의례히 받군 하는 질문이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인간의 소원과 념원이 돈에 의해 통락되는 사회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이렇듯 훌륭한 물놀이장에서 마음껏 즐기는것을 상상할수 없기때문이다.

실내물놀이장과 야외물놀이장이며 종합적인 봉사시설이 그쯘히 갖추어진 문수물놀이장에는 인민들의 환희에 넘친 웃음꽃이 활짝 피여난다.

얼마전 문수물놀이장을 찾았던 카나다의 한 인사는 자기의 진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저렇듯 시름없이 웃고 떠들며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평범한 근로자들이 옳은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의 현실은 나에게 꿈의 세계로밖에 안겨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것은 사람의 가치와 인생의 행복이 돈에 의해 결정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기때문이다.》

로씨야련방평의회 1부의장은 정말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이 물놀이장은 내가 가보았던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있는 물놀이장들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특히 우리의 놀라움을 자아내는것은 이처럼 훌륭한 물놀이장의 건설기간과 매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수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것은 다 사람들을 위한데로 지향되고있으며 그들의 편리와 건강을 첫자리에 놓고있다. 여기서 귀국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돌려주시는 사랑이 느껴진다. 앞으로 로씨야에 가면 조선을 찾는 사람들에게 꼭 문수물놀이장에 가보라고 권고하고싶다.》

그렇다.

인민대중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내 나라의 현실이 바로 문수물놀이장에 환희롭게 펼쳐져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단상 무지개

희한한 물놀이기재들이 키를 솟군 수조마다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 넘쳐나고 즐거운 물놀이로 긴 여름해도 짧아보인다는 문수물놀이장, 8월의 눈부신 해빛이 푸른 물결우에 구슬마냥 반짝이는데 누군가의 웨침소리가 흥겨움게 들린다.

《야, 무지개!》

갖가지 분수에서 솟구쳐오르는 뽀얀 물보라에 아름다운 칠색무지개가 비낀것이다. 순간 그 무지개가 비낀 물보라속으로 저저마다 뛰여드는 아이들이며 령롱한 무지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처녀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안내원 최은하동무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문수물놀이장에는 저렇게 사시장철 아름다운 무지개가 비껴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느라니 우리의 눈앞에 그 무지개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만 안겨오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또 하나의 인민의 재부로 솟아난 문수물놀이장.

그 사랑에 받들려 인민이 바라던 꿈과 리상이 더 활짝 꽃펴나고있는것이 바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빛나는 현실이다.

무지개는 해빛과 공기속의 무수한 물방울로 하여 생긴다.

태양같이 눈부신 어버이의 사랑과 바다같이 끝없는 인민의 행복이 합쳐져 사회주의문명의 무지개는 그리도 황홀한것이며 내 조국강산에 아름답게 비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밑거름되여

나라의 꽃봉오리들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은 조국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앞날의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해 수많은 유치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고 사색과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한평생을 다 바쳐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그들에게 온갖 천만복을 다 안겨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 위대한 사랑의 세계속에 자기들의 충정과 량심을 거울처럼 비추어보며 애국의 구슬땀 아낌없이 바쳐가는 《원예사》들이 많고많아 내 조국강산이 더욱 밝아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교양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미래와 직접 관련되여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전거리에 새로 건설된 경상유치원을 찾으신 그때로부터 부모없는 원아들에게 사랑의 궁전을 지어주시고 뜨거운 정을 기울여주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은 그이의 후대사랑이 얼마나 열화같은가를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하였다. 특히 나라의 꽃봉오리들을 키워가는 유치원일군들과 교양원들의 격정은 더욱 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은 이들에게 자기들이 지켜선 초소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고 분발하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그들속에는 창광유치원 원장 전창숙동무와 교양원들도 있다. 원장 전창숙동무는 유치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높은 사업성과로 보답할 결의를 안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새로 작성된 유치원교육강령에 따르는 다매체편집물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그는 교양원들과 함께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편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집필조를 구성한 다음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평양콤퓨터기술대학 연구사들의 방조밑에 수많은 동화상, 정지화상들로 구성된 다매체편집물 《꽃봉오리》(1, 2, 3)를 제작완성하였으며 편집물을 각 도들에 보내주어 학교전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만경대구역 팔골2유치원 원장 리영란동무와 교양원들도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육교양하기 위한 교양안을 다매체편집물로 만들것을 발기하고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완성하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리였다. 원장 리영란동무는 몇차례의 수술을 받은 몸이였지만 편집물제작을 직접 지휘하면서 교양원들과 함께 구역교원재교육강습소 지도교원의 방조밑에 1400여건의 문서자료, 음성자료, 동화상자료, 정지화상자료 등 교수과정의 적중한 계기에 리용할수 있는 교육내용과 자료들이 안받침된 편집물을 제작함으로써 교육부문 일군들의 호평을 받고있으며 어린이교육교양활동에서 큰 은을 낼수 있게 하였다.

유치원들을 경상유치원과 같이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일군들도 적지 않다.

해주시 구제유치원 원장 강영옥동무는 당의 후대사랑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았지만 이악하게 노력하여 유치원의 160여개의 출입문과 창문을 새로 제작하고 지붕기와를 모두 새로 교체한것을 비롯하여 유치원의 면모를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켰다. 뿐만아니라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실내물놀이장과 식당 등을 훌륭히 꾸리였으며 10여개의 교양실들에 교육교양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구축해놓았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양마당과 놀이실을 번듯하게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진행하여 당의 방침관철에서도 전국의 앞장에서 나가고있다.

정평군 정평유치원 원장 림기복동무는 유치원의 낡은 2개 호동 건물을 대담하게 헐어버리고 새로 건설하였으며 여러대의 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하여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교육교양사업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그는 유치원의 운동장을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교양원들을 불러일으켜 자체로 1600여장의 블로크를 찍어 놀이터에 깔아주는 한편 아담한 정각과 살아움직이는듯한 동물조각들을 만들어주어 아이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이밖에도 90여㎡의 잔디밭, 꽃밭,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수십그루의 나무들도 심었으며 책걸상과 2층침대, 신발장 등을 특색있게 새로 제작설치하여 누구나 감탄하는 유치원으로 그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스스로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구슬땀을 바쳐가는 유치원일군들의 소행은 또 그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화천탄광유치원 원장 김정희동무가 바로 그런 참된 일군들중의 한사람이다. 탄광로동계급의 자녀들을 잘 키우자면 그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부업지농사와 축산, 양어에 품을 들여 해마다 많은 콩, 감자, 락화생, 당콩, 완두콩과 고기, 물고기를 생산하여 어린이들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데 적극 기여해온 그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 자체로 구입한 20개의 벌통에서 수백㎏의 꿀을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으며 지난해 건설한 무난방온실에서 1.2t의 버섯을 생산하고 새로 건설한 양어장에서 1000여마리의 메기를 길러 어린이영양관리와 교직원후방사업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당정책이 실지 생활에서 은이 나타나게 하고있다.

정주시 흑룡협동농장 10일유치원 책임교양원 리명선동무는 부모없는 어린이를 맡아 돌보면서도 해마다 200여마리의 오리와 닭, 돼지를 길러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고기, 알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등 어린이영양관리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이밖에도 성천군 대봉협동농장 10일유치원, 청진시 포항구역 포항유치원, 만포시 만포유치원 원장을 비롯한 적지 않은 유치원일군들이 당의 뜻을 진심으로 받들어 어린이교육교양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귀중한 나라의 꽃봉오리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과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 우리 교육자들이 깨끗한 충정과 애국으로 수놓아가는 자랑찬 화폭이다.

한생을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이런 애국자들이 있기에 앞날의 강성조선을 억세게 떠받들 기둥감들은 끝없이 자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자체의 힘으로 자연흐름식물길을

장연군 청계협동농장에서

장연군에 대한 취재길을 이어나가던 우리는 청계리에서 농장자체의 힘으로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진행하여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는데 대하여 알게 되였다. 특히 농장에서는 이미 마련된 토대에 기초하여 해마다 물길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양수기대수를 줄이고있다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연흐름식물길을 많이 건설하여 온 나라의 관개체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리소재지에 도착하는 길로 우리는 농장일군과 함께 물길이 시작되는 곳으로 갔다. 겉보기에는 물량이 적어보였지만 일군의 말에 의하면 물이 마르는적이 없다는것이였다.

우리는 농장일군으로부터 자체의 힘으로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진행한 경험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앞두고 농장의 일군들이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 문제가 물원천이였다. 일군들은 리에서 오래동안 살아온 늙은이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만 잘 다스리면 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는 얼마든지 풀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추운 겨울이지만 산판에 뒤덮인 흰눈을 헤치면서 물곬을 찾기 시작하였다.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물량은 보잘것 없었지만 합쳐보니 적은 량이 아니였다. 또 이 물이 가무는 시기에도 마르지 않는다는것도 알게 되였다.

물원천을 찾아낸 일군들은 해당 부문의 기술자들과 진지한 협의를 진행한 후 합리적인 물길배치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농장의 전체 관개면적을 다시 조사한데 기초하여 지대적으로 높거나 물대기조건이 불리한 작업반, 분조를 위주로 물길을 배치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토론을 심화시켰다.

물량에 따르는 물길의 규모를 과학기술적으로 실리있게 정한 농장의 일군들과 해당 부문의 기술자들은 물길시작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있는 언덕에 주목을 돌렸다.

언덕을 에돌아 물길을 내면 자연흐름식물길에 의한 관개면적이 줄어들수 있었다. 집체적토의를 련이어 진행하는 과정에 이들은 경사구간과 수평구간을 합리적으로 정하면서 물때를 잘 지어주기 위한 과학기술적담보도 마련하였으며 바닥다지기를 질적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도 얻어냈다.

결과 농장에서는 언덕을 가로질러 물길을 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으며 합리적인 자연흐름식물길배치방안이 완성되여 공사에 착수하게 되였다.

농장의 일군들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1월부터 시작하여 영농기전에 물길공사를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였다. 근 2000m구간의 물길공사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락차고가 낮은 조건에서 물매보장과 같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잘 타산하지 못하면 공사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따라서 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하는 사업을 앞세우면서 일군들부터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공사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새벽부터 언땅을 녹이면서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공사는 불리한 일기조건으로 하여 애를 먹게 되였다.

이때 일군들은 난관앞에 주저앉으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할수 없다, 농사철에 물때문에 또 걱정만 하겠는가고 하면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속에 마침내 물길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게 되였으며 전기가 없이도 많은 면적의 농경지에 물을 댈수 있게 되였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일군들은 기본물길이 완성된 조건에서 해마다 가지치기방법으로 물길째기를 계속 내밀었다.

결과 농장에는 수십리의 총연장길이를 가진 자연흐름식물길이 형성되여 많은 면적의 농경지에 양수기가 없이 물을 댈수 있게 되였으며 양수기대수도 줄이였다.

이밖에도 물막이에 의한 물확보, 우물파기 등으로 물걱정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였다.

본사기자 지혁철

억척불변의 혁명신념은 최후승리를 본다

불과 한발자국이였다. 억측이나 가상으로 론의되던 제2의 조선전쟁이 분분초초로 다가오고있었다. 전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본 조선반도사태의 막후조종자는 미국이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과 함께 우리의 코앞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다. 여기에는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과 핵선제타격수단들이 투입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이 일어나면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태평양방면의 미제침략군을 총발동시켜 북침전면전쟁을 감행한다는것을 골자로 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른 련합작전체제를 가동시켰다. 현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악랄한 정치군사적도발의 배후에 언제나 미국이 서있다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어떻게 하나 전조선반도를 병탄하고 우리 공화국을 지도우에서 영영 없애버리려는 미국의 야망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자!

이것이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엄숙한 선언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량단의 비극을 감수한지도 70년, 장구한 세월 조선민족이 당한 불행과 고통을 우리 어찌 이 작은 지면에 담을수 있겠는가. 북과 남으로 갈라진 수많은 흩어진 가족들이 안고있는 만단사연은 민족분렬의 고통이 얼마나 가슴허비는것인가를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더이상 이대로 살수는 없다. 삼천리강토에서 5 000년의 찬란한 력사와 유구한 문화를 자랑하며 살아온 민족이 남남이 되여가는 분렬사를 끝장내야 한다. 미국과 최후결판을 짓고 쌓이고쌓인 민족의 한을 기어이 풀어 통일대국을 세계가 보란듯이 일떠세우려는 우리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우리 인민이 지닌 필승의 확신은 결코 적들이 전률하는 현대적무장장비나 원자탄에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일떠선 천만군민의 단결의 힘이 있다.

적과의 싸움은 물리적힘의 대결에 앞서 사람의 정신력, 사상의 대결이다. 전쟁의 법칙을 인식하고 적극 리용하는것도 사람이며 무기를 만들고 다루는것도 사람이다. 전쟁의 운명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인민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제국주의우두머리 미제를 반대하는 3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도 전략전술적우세와 함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었다. 우리의 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은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정신력의 바탕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동지 따라 시작되고 위대한 김정일동지 따라 꽃꽃이 이어졌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길이다.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년대기마다에서, 준엄한 력사의 폭풍우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새겨안았다. 이 땅의 녀인들이 쌀알마저 세여보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며 다져온 자위적핵억제력은 우리의 사상, 우리 제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핵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무장해제와 제도붕괴를 노리고 벌어지는 미제의 광란적인 핵위협공갈을 짓부시고 인민의 생존권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냈다. 위대한 당을 따라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헤치며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신념이 철의 진리로 간직되였다. 하기에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를 삶의 요람으로 귀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우리 인민의 삶의 전부인 사회주의를 우리는 결코 버릴수 없다.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그것을 지키고 빛내이려는 각오와 의지는 백배해지는 법이다. 원쑤들의 모진 고문과 회유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끝끝내 사랑하는 조국의 품에 안긴 신념과 의지의 화신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이 세상 그 어느 고전이나 사전에도 없는 비전향장기수라는 부름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떨쳐나선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깨우쳐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닌 조국수호의 의지는 이 땅을 어지럽히려고 발광하는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로 더더욱 굳세여지고있다. 미제는 우리 인민이 대를 두고 철저히 소멸해버려야 할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기간 우리 공화국의 매 ㎢당 18개의 폭탄을 투하하고 수도 평양에는 인구 한사람당 1개가 넘는 방대한 량의 폭탄을 떨구어 온 강토를 초토화해버린 야수들이다. 양키들은 2개월도 못되는 기간에 신천군에서만도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명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불태워죽이고 생매장하였으며 어린이들을 어머니품에서 강제로 떼내여 화약창고에 가둔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죽였다. 지어 사람들의 머리에 못을 박고 사지를 찢어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도 거리낌없이 저질렀다. 이 땅을 통채로 하나의 《신천》으로 만들려고 발악한 미제는 세균전과 화학전까지 벌려 수백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미제야수들의 죄악사는 1953년 7월 정전으로 끝난것이 아니였다.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고립하고 압살하기 위해 고안된 모략극들,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기 위한 봉쇄책동과 《제재결의》들, 사상문화적침투와 《인권》소동 등 형형색색의 적대적인 행위들은 그 령역과 지속성, 악랄성에 있어서 력사에 전무후무한것이다. 미국은 우리 인민을 멸살하기 위해 핵전쟁을 준비하고 현대판세균전까지 벌릴것을 획책하고있다. 삼천리강토의 그 어디에나 력력히 새겨져있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미제승냥이들의 죄악의 력사는 우리를 피의 복수에로 부르고있다.

미국이 대결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무자비한 반미성전을 벌릴것이다. 우리의 존엄, 우리의 제도를 해치려는 원쑤들을 추호도 용서한적이 없는 조선의 총대이다. 1950년대의 조선전쟁을 돌이켜보라. 우리 공화국은 창건된지 얼마 안되였던 그 시기 미제와 15개의 추종국가군대들, 남조선괴뢰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한 200여만명의 호전광무리와 싸워 승리한 영웅조선이다. 제국주의강적을 무릎꿇게 한 우리 인민앞에 미제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심겨바친 항복서는 또 얼마인가.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렬강들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엄혹한 현실속에서 우리의 총대는 보다 위력해졌다.

우리 인민의 승리에 대한 신념은 지심깊이 뿌리박은 백두산악처럼 굳건해졌다. 눈속에 묻힌대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무서져 가루돼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열백번 불에 타도 끝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노래의 구절구절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려는 천만군민의 심장의 웨침이다.

지금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이 벌리는 전쟁도발책동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세기를 주름잡아 폭풍쳐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용에 질겁한자들의 단말마적인 광증이다. 원쑤들은 우리 공화국을 무서워하며 공포에 떨고있다. 오죽하면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이라는자가 북조선때문에 때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느니 뭐니 하면서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였겠는가. 미증유의 대미분노심과 보복열기로 끓어번지는 우리의 땅은 미본토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반공격, 반타격기지로 전변되였다.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불바다로 만들며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할것이라는 우리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다.

대세를 망각한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도발에 미쳐날뛸수록 우리는 최후승리가 시시각각 다가오고있다는것을 확신한다. 위대한 백두령장들의 품속에서 억척불변의 혁명신념을 벼리며 무적의 힘을 키워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본다.

배 금 희

여러 나라 신문 특집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쁘렘스까야 쁘라우다》가 얼마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을 모시고 당창건기념탑사진,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해방되였다.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쌓인 피로를 푸실 사이도 없이 새 조선건설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

당시 조선은 장기간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페허나 같았으며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조선인민의 새 조국건설을 방해해나섰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에 토대하여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짧은 기간에 일제식민지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몽골신문 《어드린 쏘닌》 15일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특집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국해방으로 조선인민은 일제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존엄높은 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민족의 정신문화적재부들을 마구 파괴략탈하였다.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이 강제련행, 랍치되여 전쟁터와 고역장에 끌려갔으며 20만명의 녀성들이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을 이룩하시였다.

또한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전변시키시였다.

조선은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70년간 자기의 사상과 제도, 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조국해방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력사적전환점을 마련한 사변이였다.

잠비아신문 《포스트》 13일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칭송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야마도혼》을 부르는 군국주의광신자들의 추태

지난 15일 일본정객들이 집단적으로 야스구니진쟈에 몰려가 참배놀음을 요란스럽게 벌려놓았다. 력사의 시궁창속에 처박힌 《야마도혼》을 부르는 군국주의광신자들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야스구니진쟈가 어떤 곳인가 하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극단한 야마도민족주의에 빠져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파쑈적폭압에 미쳐날뛰다가 개죽음을 당한자들의 명부와 위패가 바로 이곳에 있다. 이자들은 그 어떤 《추모》를 받을만 한 한푼의 가치도 없다.

야스구니진쟈를 찾아 이런 인간추물들을 《추모》한다는것은 그자들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수백수천만 인민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또한 반인륜적범죄사를 로골적으로 찬양하는것으로서 력사의 응당한 심판을 받은 군국주의자들의 복수를 하겠다는것을 뻐젓이 선포하는것으로 된다. 그런즉 일본정객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문제가 단순히 일본에만 국한된 내부문제가 아니라는것은 자명하다. 과거침략력사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립장과 태도, 그 청산문제와 앞으로의 대아시아관을 보여주는 예민한 정치적문제이다. 국제사회가 일본정객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에 강한 격분을 표시하며 참배놀음을 그만둘것을 요구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집권층의 태도는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함에 있어서 그 누구의 눈치도 감정도 고려할것이 없다는것이 군국주의에 쩔대로 쩐 이들의 관점이며 립장이다. 정부의 수상이라는자가 해마다 야스구니진쟈에 제물비를 보내는것, 총무상과 국가공안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고위인물들의 진쟈참배가 관례화되는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이다. 인류의 량심과 정의를 우롱하는 일본당국의 파렴치성은 이처럼 극도에 달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자국민들을 침략사상으로 무장시켜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자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야스구니진쟈참배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써 나라를 군국화하여 어느때든지 해외침략을 단행할수 있게 만들려 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집권층의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은 일본인들의 머리속에 군국주의사상을 심어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있다. 일본집권층속에서 참배기운이 높아질수록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야마도민족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할 사명》을 타고났다는 궤변밑에 해외침략에 광분하였던 사무라이들을 형상한 《동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우익분자들의 우상의 대상이 되고 군국주의, 배타주의를 찬미하는것이 하나의 륜리로 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오늘날 일본렬도에서 세차게 일고있는 군국주의열풍은 재침이 현실로 박두해오고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재침은 일본이 스스로 자멸의 구렁텅이에 뛰여드는 어리석고 미련한짓이다. 《동방의 맹주》가 되겠다며 침략전쟁에 광분하던 어제날의 파쑈일본이 패망의 쓰디쓴 맛을 보았듯이 《야마도혼》을 되살리며 군국화에로 질주하는 일본의 래일도 결코 달리는 될수 없다.

강 철 수

침략적인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의 중지를 요구

여러 나라 단체 공동성명 발표, 인터네트홈페지에 글 게재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미국과 남조선의 대규모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책동을 규탄하여 1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범죄적인 성격을 가리우기 위해 미국과 남조선은 이 연습이 《투명하고 방어적》이며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여왔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파렴치한 거짓이다.

이번 군사연습은 이전시기에 진행된 다른 군사연습들과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연습이다.

특별히 엄중한것은 적대세력들이 이 범죄적이고 침략적인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을 조선해방 70돐이 갓 지난 후에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해방 70돐이 되는 력사적인 해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군사연습을 벌리지 말것을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여러차례 요구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으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북의 위협》을 막기 위한것이라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변명은 뻔뻔스러운것이며 그 누구도 속아넘어가지 않을것이다.

조선인민군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강력한 군사적대응으로 대답할것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라!

미제는 남조선에서 당장 나가라!

양키는 제 집으로 돌아가라!

※ ※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16일 인터네트홈페지에 미국과 남조선의 북침합동군사연습소동을 규탄하는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군사연습을 새로운 조선전쟁의 전주곡으로 간주하면서 적들이 끝끝내 침략의 불을 지핀다면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온 세계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정세가 더욱 악화되고있는것을 규탄하면서 조선해방 70돐이 되는 시기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대신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으로 전쟁열을 올리고있는데 대하여 비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1950년대와는 달리 지금 조선에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고 선언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여야 할것이다.

평양시간적용을 환영하여 담화 발표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 이브라힘 만투가 평양시간적용을 지지하여 1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 시기 일제는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으며 조선민족말살정책을 일삼으면서 조선의 표준시간까지 빼앗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해방 70돐, 일제패망 70년이 되는 8월 15일을 맞으며 동경 127°30′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명명한것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피로 얼룩진 극악무도한 일제의 죄악과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려는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표준시간인 평양시간이 새롭게 적용되는것을 적극 지지한다.

일본의 침략력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벌가리아신문 글 게재

벌가리아신문 《노보 라보뜨니체스꼬 델로》 8월 1일-15일호가 《70년후 일본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면서 아시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참화를 들씌운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70년이 흘렀다.

력사는 인류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수적만행을 잊지 않고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있다.

국제사회는 일본이 자기의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인류를 경악케 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저들의 침략력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신중하게 처신할 대신 과거범죄를 부정하면서 또다시 침략의 길로 나가기 위해 군사대국화에 열을 올리고있다.

과거범죄를 외곡하려는 일본의 책동은 그것을 숨기려는 단계에서 완전히 부정하는 단계에로 넘어갔다.

일본은 《자위대》의 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있으며 해외침략의 구실을 찾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다.

이것이 바로 패망 70년후의 일본의 모습이다.

침략의 력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조강생산 증가

이란에서 올해 첫 7개월동안에 조강생산량이 964만 5 000t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늘어난것이라 한다. 최근 세계강철협회가 밝혔다.

고무수출 증대

캄보쟈에서 상반년에 약 6만 2 000t의 고무를 수출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어난것으로 된다. 17일 이 나라 상업성이 밝혔다.

도로건설

나미비아의 서북부지역에서 19일 새 도로가 개통되였다.

길이가 85㎞인 이 도로는 나라의 국경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천연자원개발 추진

남아프리카에서 천연자원개발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이 나라 대통령은 정부가 원유와 가스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서남부해안지역에서 원유 및 가스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거기에서만도 매일 37만㎥의 원유를 채취할수 있으며 13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조성되게 된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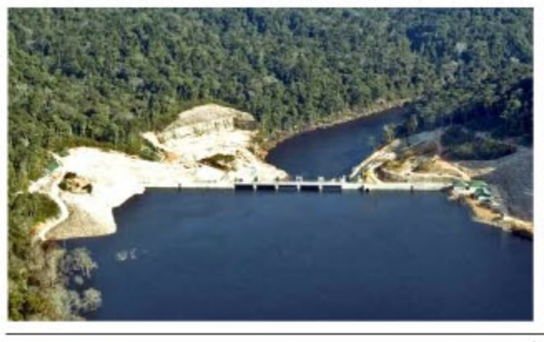
농촌전기화실현 계획

인디아정부가 15일 농촌전기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1만 8 500개 농촌마을들에 전기가 들어가게 된다 한다.

이 나라 수상은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3년안에 이 계획을 실현할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라오스의 수력발전소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로씨야가 최근 서방의 대로씨야제재에 합세한 알바니아와 쯔르나고라, 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의 나라들로부터 농산물과 식료품수입을 금지하는 대응제재조치를 취할데 대한 정부결정을 채택하였다.

로씨야의 이번 조치는 서방의 반로씨야압박소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것으로서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때문에 로씨야정부가 취한 대응제재조치는 광범한 로씨야인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그런데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세력은 로씨야의 강경대응조치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비방중상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로씨야의 대응제재명단에 들어간 나라들은 유감이라느니,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느니 뭐니 하며 저들이 본의아니게 어쩔수 없이 대로씨야제재에 합세해나선것으로 구구히 변명해나서고있다.

그들의 주장인즉 유럽동맹과 맺은 협정이 있기때문에 유럽동맹의 대로씨야제재결정을 따를수밖에 없었다는것이다.

로씨야가 이것을 반박해나섰다. 로씨야수상 메드베제브는 유럽동맹과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서방의 반로씨야책동에 동조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대로씨야제재에 합세한 나라들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따라서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강경대응조치로 대로씨야제재에 참가한 나라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보게 되였다. 바빠난 일부 나라들이 저들의 립장을 설명하기 위해 로씨야와 대화를 진행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나 일은 이미 엎질러놓은 물과 같이 되였다.

로씨야는 자기의 립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있다.

로씨야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미전부터 로씨야는 자국을 반대하는 제재에 참가하는 나라들에 대응제재조치를 취하는것을 국가주권과 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원칙적인 문제로 보아왔다. 때문에 여기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려 하고있다.

그도그럴것이 서방의 대로씨야제재가 이 나라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려 사회적혼란을 조성하고 그것을 정부에 대한 불만에로 몰아가 정권을 교체하려는데 목적을 둔것이기때문이다.

서방의 반로씨야책동은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감행되여왔다. 그러던것이 우크라이나사태를 계기로 더욱 강도높게 벌어지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년간 우크라이나에서는 일련의 문제를 발단으로 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였다. 이것은 그대로 크림의 로씨야련방가입과 도네쯔크주와 루간스크주의 독립선포에로 이어졌다. 그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군과 민병대들사이의 물리적충돌이 나날이 확대되고 이로 하여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이 모든 책임을 로씨야에 넘겨씌우면서 이 나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책동을 집요하게 벌려왔다.

로씨야를 침략자로 몰아대면서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일것을 강요하여나섰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무근거한것이였다. 실지 우크라이나사태가 일어난것은 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내정간섭책동때문이였다.

그런데도 서방세력은 강짜를 부리면서 로씨야에 압력을 가하였고 저들의 강요가 잘 먹어들어가지 않자 비렬하게도 제재소동에 매달렸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동맹은 로씨야를 우크라이나에 비극적사태를 몰아온 범죄자로 몰아대면서 이 나라의 금융, 에네르기 등 여러 분야를 목표로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서방의 제재조치에 로씨야가 강경대응해나섰다.

로씨야는 우크라이나사태의 책임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있다고 하면서 서방이 대가를 치를것이라고 경고하고 실지 행동으로 넘어갔다.

서방을 대상으로 대응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유럽동맹나라들의 식료품수입을 금지하고 다른 지역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길로 나갔다. 이로 하여 유럽나라들이 많은 경제적손실을 보았다.

로씨야를 주요시장으로 삼고있던 유럽나라들의 상품판로가 막히게 되였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침체상태에 들어가고 숱한 실업자들이 발생하였다. 일이 이쯤 되였으면 응당히 여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였다.

그러나 서방은 대로씨야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갔다.

바로 얼마전에 유럽동맹은 대로씨야제재를 연기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알바니아와 쯔르나고라 등의 나라들이 합세하여나섰다.

이러한 사태는 로씨야로 하여금 강경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

로씨야는 서방의 제재연장조치가 발표된 후 자기 나라도 서방을 대상으로 한 대응제재조치를 확대한다는것과 이번에 대로씨야제재에 합세한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로씨야의 지도부를 교체하려는 목적실현을 위해 제재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는 조건에서 로씨야가 그에 강경대처해나가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게 되여있다.

지금 로씨야에서는 대응제재조치의 한 고리로 이미 자국에 들어온 서방식료품들을 페기하는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있다.

이밖에 무역의 다각화와 식료품을 비롯한 여러 제품들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밀고나가고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로씨야의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학 남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전쟁연습소동

• 미국이 나토성원국들과 공모하여 최근 유럽지역에서 랭전이후 최대규모의 합동공수훈련을 벌리고있다.

15일부터 4주일동안 진행될 훈련에는 미륙군과 도이췰란드, 프랑스, 에스빠냐, 이딸리아 등 11개의 나토성원국들에서 4 800명의 병력이 동원되였다.

미륙군은 26일 도이췰란드에서 1 000명의 미제82공수사단 병력이 대규모공수훈련을 벌리게 되며 이것은 1999년이후 처음으로 유럽에서 작전을 전개하는것으로 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나토의 무모한 전쟁도발연습은 로씨야 등의 경계심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 일본반동들이 18일 도꾜로부터 서쪽으로 80㎞ 떨어진 훈련장에서 군사훈련을 개시하였다.

훈련에는 2 300여명의 《자위대》병력과 80대의 땅크와 20대의 전투기, 공격용직승기가 동원되였다.

이날 훈련에서는 일본의 한 섬이 《공격》받는다는 각본에 따라 가상적의 진지를 공격하는 놀음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벌어졌다.

국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관련법안을 강행추진하면서 벌리는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전쟁연습소동은 지역정세를 보다 격화시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51135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